

# 왜 창업인가?

- 지역특화 스타트업 육성 및 스케일업 정책 지원방안 연구 -

| 2022년 7월 |



# CONTENTS

## 요 약

### I 서론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01. 창업 생태계 환경 변화 ..... 8
- 02. 창업 지원정책 변화 필요성 ..... 12
- 03. 창업 지원정책 변화 방향 ..... 19
- 04.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1

### II 국내·외 창업 지원정책 동향 분석

- 01. 국내 창업 지원정책 현황 ..... 22
- 02. 해외 주요국의 지원정책 현황 ..... 30
- 03. 정책적 시사점 ..... 38

### III 정책지원기관 역할 검토

- 01. 창업 지원체계 조사 ..... 40
- 02. 지원기관 역할 강화 방안 검토 ..... 47

### IV 창업사관학교 발전방향 검토

- 01. 창업사관학교 현황 분석 ..... 53
- 02. 창업사관학교 중장기 추진 방향 ..... 58
- 03. 창업사관학교 신규 프로그램 제안 ..... 68

### V 결론 :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01. 중진공 창업 지원사업 방향성 모색 ..... 74
- 02. 창업 지원분야 신규 프로그램 제안 ..... 81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요약

---

## 왜 창업인가?

지역특화 스타트업 육성 및 스케일업  
정책 지원방안 연구

# 지역특화 스타트업 육성 및 스케일업 정책 지원방안 연구



## [요약]

### ■ 서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 창업 생태계 환경 변화: 제2 벤처붐, 사업화 모델 변화

- 한국 창업 생태계 규모는 '제1벤처붐('00년)' 당시 신설법인 수, 벤처투자 실적 등을 2배 이상 대폭 경신하여, 최근 '제2벤처붐'이 도래
  - \* 신설법인(만개): ('00) 6.1 → ('20) 12.3 (2배↑), 기술창업(만개): ('16) 19.1 → ('20) 22.9, (20.1%↑)
  - 신규벤처투자(조원): ('00) 2.0 → ('08) 0.7 → ('17) 2.4 → ('19) 4.3 → ('21) 7.7
-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기술 스타트업\*의 비중 확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관련 스타트업이 증가하는 등 사업화 모델에도 큰 변화가 발생
  - \* 인공지능·가상융합현실(XR), 사물인터넷(IoT), 핀테크(Fintech) 등
- 중기부 창업지원 예산(용자, R&D 제외)은 '98년 82억원에서 '22년 8,695억원으로 100배 증가, 지원기업의 평균 매출액·고용 2배 증가, 생존율(5년)도 전체 창업기업 대비 1.83배 높음
  - \* 매출(억원): ('09) 3.0 → ('19) 6.1, 고용(명): ('09) 3.9 → ('19) 7.1, 생존율(%): (자원社) 57.1, (전체社) 31.2

#### • 창업 지원정책 변화 필요성: 스케일업·지역유망 스타트업 중심으로 민간협업, 정책연계 강화

- 지역 주력산업 쇠퇴 지역의 기업 신생률\* 저하, 창업활동 부진, 생존율\* 저하, 산업별로 제조업 분야 신생률(8.7%)은 전체 산업(15.5%) 절반 수준
  - \* 신생률(%): 대구(13.6), 경북(13.9), 부산(14.0), 전국(15.5)
  - \*\* 5년 생존율(%): 울산(28.3), 광주(29.6), 경남(29.9), 전국(32.1)
- 생산·고용증대 등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스케일업 기업(고성장기업)\* 비중은 '18년 이후 정체, OECD 주요국과 비교 시 한국 고성장기업 비중 하위권에 위치
  - \* 매출·고용이 최근 3년간 20% 이상 증가한 기업, 이 중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가젤기업
  - \* 스케일업 비중(%): ('16)9.9, ('17)9.9, ('18)10.3, ('19)9.7, ('20)9.2
  - \* 국가별 스케일업 비중(%,'19): (한국)9.7, (네덜란드)14.5, (스웨덴)12.6, (프랑스)12.1
  - \* 주력산업 쇠퇴 지역 고성장 비중 저조(%): 대구(8.0), 강원(7.9), 경북(8.0), 경남(7.7), 전국(9.2)
- 新정부 정책 방향: 직접 지원 축소, 민간주도의 혁신 성장 중심으로 지원 방식 전환 ⇒ 고성장기업·지역 특화유망창업기업 발굴·육성, 기관내 창업수단 연계 강화, 민간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 • 연구의 필요성: 스타트업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 및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 지원 강화방안 모색 필요
- 지역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스케일업 정책 지원방안 연구 필요

## ■ 국내·외 창업 지원정책 동향

- **사업유형별·부처별 창업 지원정책:** 총 378개 사업, 예산규모는 3.67조원으로 용자·사업화 지원이 가장 큰 비중 차지, 부처별로 창업지원정책을 주관하는 중기부의 예산이 3.3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93.1% 차지

\* 용자사업 제외 시에도 중기부 예산 1.31조원으로 전체(용자 제외 1.64조원)의 79.8% 차지

<b>사업유형(%)</b>	용자(55.1), 사업화(24.9), 기술개발(12.6), 시설·공간·보육(4.2)
<b>부처별(%)</b>	중기부(93.1), 문체부(1.7), 과기부(1.5), 고용부(0.9), 농림부(0.6) 등

- **중기부 소관 창업지원사업:** 용자 제외시 사업화 유형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정책분야별로, 창업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예산이 큰 비중 차지

<b>사업유형(억원)</b>	용자(20,000), 사업화(6,869), 기술개발(4,436), 시설·보육(1,121)
<b>정책분야(%)</b>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34.2),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15.1), 민간투자 연계(12.8), 특화산업(12.7), 청년창업양성(11.4), 글로벌창업(7.5), 사회적약자(3.2), 인력개선(3.0)

- **해외 창업 지원정책:** 금융, 세제혜택 등 창업환경 개선, 멘토링 분야 지원 중. 스타트업 정책의 초점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육성으로 전환

<b>미국</b>	기업가정신교육, 멘토링, 자문, 금융접근성 제고, 네트워킹 강화 등
<b>EU</b>	인재확보, 리더십 강화, 판로, 자금, 인프라 등 스케일업 지원 정책 시행 (영국은 스케일업 육성 전담기관(Scale Up Institute) 설립)
<b>중국</b>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별(중관촌 등 10곳) 가젤기업 육성·지원 대책 마련 후 대출우대·보증 등 금전적 지원과 세제혜택 등 지원

## ■ 국내 정책지원 강화 필요 분야

- 창업지원 정책은 금융, 기술개발 지원 비중이 컸으며, 창업성장단계별 패키지 지원,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민간투자 연계 지원 등 전 부분에 걸쳐 지원 정책 추진 중
- 다만, 해외 주요국 대비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 정책,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유망 스타트업 육성정책, 제조분야 창업 지원정책은 부족한 수준
- **지원분야:** 스케일업, 지역 스타트업, 제조업 창업지원 강화 및 지원방식 고도화 필요

<b>스케일업</b>	스케일업 정책 양적 부족, 업력 위주 지원함에 따라 성장단계 맞춤형 정책 부족 ⇒ 고성장기업 육성 정책 강화 + 매출, 고용 등 성장단계별 체계적 스케일업 지원
<b>지역기반 스타트업육성</b>	시설·보육사업 위주, 지역/산업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스케일업 정책 부재 ⇒ 지역특화 산업부문 창업 촉진, 지역 유망 스타트업 집중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b>제조업 분야 창업지원정책</b>	제조업 신생률 지속 감소세, 제조업 창업 특화 정책 부족 ⇒ 제조분야 혁신 창업 촉진 정책 필요, 주력산업 구조혁신 및 경쟁력 강화
<b>지원방식 고도화</b>	(자금조달) 용자 위주 ⇒ 투융자복합, (판로) 거래선 발굴 ⇒ 글로벌 창업 (지원방식) 기능별·분절적 지원 ⇒ 성장단계별 맞춤형 원프로세스

■ 창업정책지원기관 역할

-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현황: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은 37개 기관에서 수행 중이나, 광범위한 창업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은 창진원과 중진공 정도임
- 지원예산 기준(용자포함, %)으로는 중진공(59.0), 창업진흥원(20.3), 기정원(12.5) 순
- 지원예산 기준(용자·R&D 제외, %)으로는 창업진흥원(67.3), 중진공(9.1) 순

<b>중기부</b>	중진공, 창진원, 기정원, 소진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b>문체부</b>	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b>과기부</b>	정보통신기획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청년기업가정신재단, 데이터산업진흥원,
<b>농림부</b>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술진흥원, 농진청

-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비교: (창진원) 타기관 재위탁, (중진공) 직접·민간협력 운영

구분	창진원	중진공
<b>기능</b>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성장 지원 (창업 실태조사, 창업교육, 창업 저변 확대, 창업 기반 조성 등)	중소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제조·신산업 혁신성장, 수출·글로벌화,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혁신, 사업구조 전환 등)
<b>운영방식</b>	민간 재위탁(대학, 협회 등) (주관기관 선발, 주관기관 위탁·평가)	중진공 직접 수행(책임 지원) (창업사관학교 직접·민간협력 운영, 정책자금 연계)
<b>특장점</b>	창업 전담기관, 중기부 정책 확대, 기획 인력	집행조직, 기업진단·평가노하우, 정책연계, 사후관리

- 중진공은 국내 현장 지원거점, 해외거점 인프라, 중소기업 진단역량 및 다양한 정책 수단(자금·판로·인력)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자체,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 특화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필요

■ 지원기관 역할 강화 방안

- 중기부 산하 창업지원기관 협업 거버넌스 구축
  - 기관별 강점과 고유 역량을 활용하여 정책역할 집행 분담 및 협업체계 구축
  - ①민간소외·취약부문(지역·제조·재창업)과 ②유망 중소기업 발굴, 다양한 정책 수단 연계를 통한 종합육성 방식이 효과적인 스케일업 육성정책은 유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공공주도 집행 역할도 중요
  - (창진원) 창업생태계 구축,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능

<b>중진공</b> (혁신성장 질적성장)	▶지역 창업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 유망기업의 스케일업 육성 담당 ▶현장접점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발굴, 기업진단 기반 정책수단 연계 등 직접 집행 ▶투자, 네트워킹 등 민간 우수한 부문은 민간과 협력
<b>창진원</b> (저변확대, 양적성장)	▶창업 촉진을 위한 저변확대 및 분위기 조성 담당 ▶민간과의 협력 추진 주력



## ■ 창업사관학교 발전방향

- 창업사관학교는 국내 지역본·지부(33개), 지역창사 등 지역거점을 활용한 유망기업 발굴과 지역 혁신기관과 협력사업 추진이 용이  
⇒ 주력산업, 대학, 인프라 활용 특성화 트랙 운영: (지역) 지역 특성화 / (수도권) 스케일업
- 국내외 직접 집행조직을 바탕으로 국내 창업교육·멘토링 노하우와 해외 현지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원스톱 지원  
⇒ (글로벌특화과정) 국내 창업 멘토링 + 해외 현지화 지원 프로그램 병행

### • 창업사관학교 발전방향

지역 창업사관학교 지역 내 창업거점으로 확대	▶지역 주력산업에 기반한 특화트랙을 전국 창사로 단계적 확대 도입 ▶특화트랙은 지역특화산업, 규제특구, 지역산업성장프로젝트 등 고려 후 선정 (예시)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관광), 인천(스마트물류, 바이오) ▶기존 지역산업성장프로젝트에 창업 분과 추가, 창업혁신 신규프로젝트 추진
스케일업 지원 강화	▶스타트업 생태계가 양호한 수도권 내 업종별 특화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유망 창업 아이템·기술 보유 스타트업 seed투자(수천만~5억) 단계로 육성 ▶민간과 협업을 통해 맞춤형 코칭·멘토링, 인재확보, 네트워킹 등 지원
창업사관학교 노하우 활용 사업 확장	▶(글로벌) 창사 국내 창업교육·멘토링과 해외거점(BI) 현지화 프로그램 연계한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글로벌지향형(Born Global)기업 대상) ▶(온라인) 창업사관학교 노하우를 활용한 온라인 창업과정(Launchpad) 운영 ▶(ODA)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이어드림 등 다양한 창업사업으로 ODA 협력 확대
대내외 정책수단과 원활한 연계	▶(금융기법 다양화) 혁신산업 분야 中企 대상 투·융자 복합금융 확대 검토 ▶(맞춤형 원스톱) 온라인 자가진단, 심층진단·코칭, 창사 내 연계강화(지역특화→스케일업→글로벌), 후속 민간 VC, KVIC 등 연계 등 창업기업 원스톱 지원

### • 창업사관학교 신규 프로그램 제안

- \*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스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딥테크 스타트업 양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프로그램,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 ■ 시사점 : 중진공 창업 지원사업 방향성 모색

### • 창업 지원사업 중장기 방향성

- (스케일업) 중진공이 추진하기에 적합한 분야는 창업기업의 도약과 스케일업 육성 분야로 현장거점 기반으로 유망 창업기업 발굴 기능 및 스케일업 진단을 기반으로 필요한 대내외 정책수단을 연계지원하는 스케일업 육성 역할 강화
- (지역특화) 지역 창업사관학교 특성화 및 지역 유망 창업기업은 스케일업 패키지 트랙으로 연계하여 지역주력산업 고도화 및 특화산업 혁신 창업기업 육성
- (글로벌화) 국내 거점을 통해 발굴된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 대상 해외거점 현지화지원사업, 네트워킹 연계지원하여 글로벌 유니콘으로 육성
- (규제혁신) 현장접점에서 스케일업과 유니콘(KVIC 협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 역할 수행

### • 창업 지원분야 신규 프로그램 제안

- \* 캐스케이딩 펀드, 규제자유특구·지역 연계 글로벌 창업도시, 지역 창업·시니어 기술 창업





# 연구보고서 본문

- 
- I. 서론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II. 국내·외 창업 지원정책 동향 분석
  - III. 정책지원기관 역할 검토
  - IV. 창업사관학교 발전방안 검토
  - V. 결론 :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I 서론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01 창업 생태계 환경 변화

### ○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 주요 지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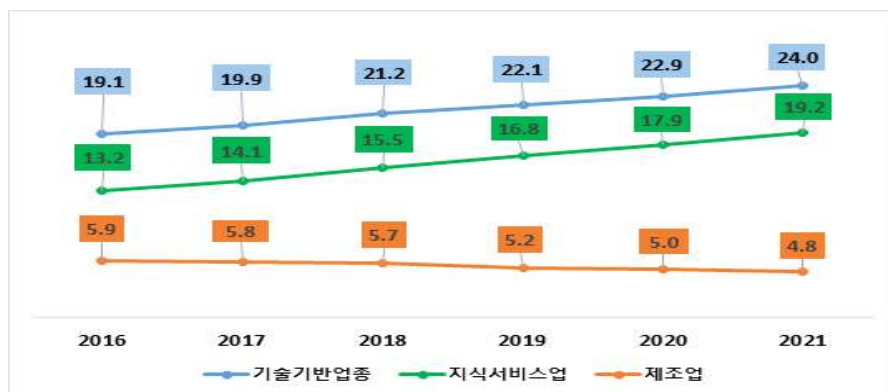
(※ 출처: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중소벤처기업부, 2021.4)」 외)

- 한국 창업 생태계의 규모는 '00년대 초반 '제1벤처붐' 지표를 2배 이상 경신 하며, 최근 '제2벤처붐'이 도래
    - 신설법인은 20년 동안 약 2배('00년 61,456개 → '20년 123,305개) 증가, '11년 부터는 역대 최대치를 매년 경신, 기술기반 창업\*은 최근 4년간 20.1% 증가
-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6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교육,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

【 연도별 신설법인 및 기술기반 창업기업 추이 】



연도별 신설법인 추이 (출처: 신설법인동향 및 창업기업동향)



연도별 기술기반 창업기업 추이 (출처: 창업기업동향, 개인 및 법인, 단위 만개)

- 벤처투자 규모는 제1벤처붐 시기 신규 벤처투자액 2조원에서 정체되다가 '17년 이후 급등하여 매년 최고치 경신, '19년 4.3조원, '21년 7.7조원 기록
- \* 신규 벤처투자(조원): ('00) 2.0 → ('08) 0.7 → ('17) 2.4 → ('19) 4.3 → ('21) 7.7
- \* 창업·벤처 언론기사(개): ('00) 51,182 → ('08) 25,329 → ('16) 74,459 → ('19) 101,937

【 창업생태계 주요 지표 변화(중소벤처기업부) 】



○ 창업 사업화 모델의 변화(중기부, 2021.4)

- '09~'20년간, 중기부 창업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중 2.7만개사의 창업사업화 지원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화 모델에서도 변화가 있었음
-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17년 이후 인공지능빅데이터, 가상융합현실(XR), 사물인터넷(IoT), 핀테크(FinTech) 등 기술 스타트업의 비중 확대된 반면, 모바일 앱·일반SW 사업화 모델은 '16년 이후 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추세
- \* 모바일 앱·일반SW 비중(%): ('09~'12) 21.2 → ('13~'16) 27.6 → ('17~'20) 16.5
- \* 인공지능·빅데이터 비중(%): ('09~'12) 0.6 → ('13~'16) 1.6 → ('17~'20) 8.8
- 공유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경제 가속화로 비대면 쇼핑, O2O 등 서비스·상품 중개 플랫폼 스타트업이 크게 증가
- \* 서비스·상품 중개 플랫폼 비중(%): ('09~'12) 2.2 → ('13~'16) 4.5 → ('17~'19) 8.9 → ('20) 12.5
- 고부가가치 분야 바이오·헬스케어는 지속적 강세, 산업전반 소재·부품·장비\* 및 생활밀접 소비재 분야는 지난 12년간 스타트업이 꾸준히 진출
- \* 단, 비중(%)은 '09년 이후 감소 추세: ('09~'12) 13.8 → ('13~'16) 12.3 → ('17~'20) 8.5



【 주요 유망 사업화 모델의 변천(중기부, 2021) 】

참고 : 주요 유망 사업화 모델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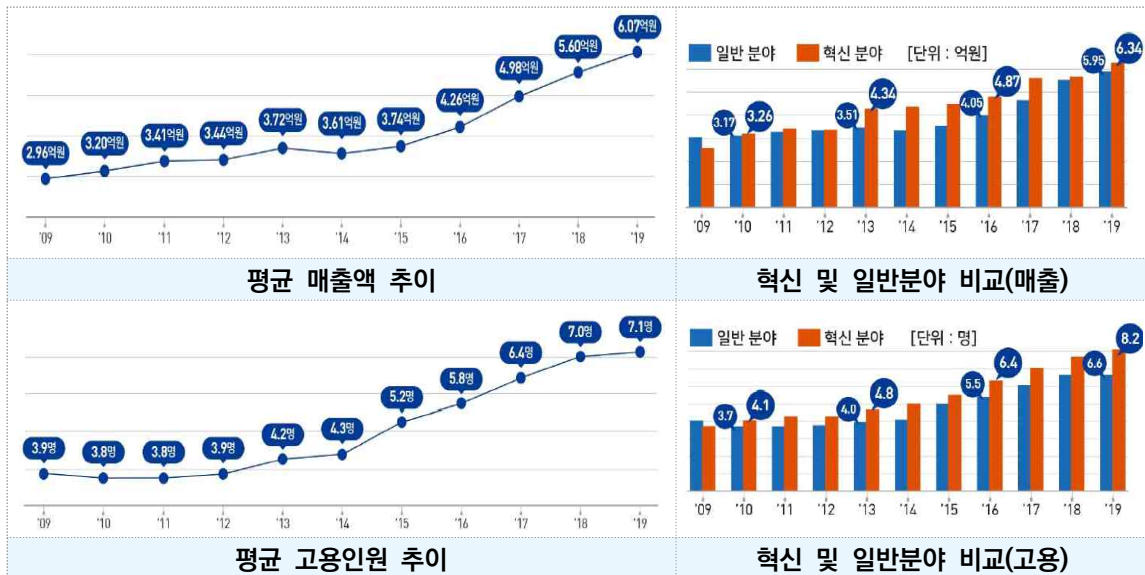
\*      '17년 이후 떠오른(순위와 비중이 급격히 증가) 창업 사업화 모델  
     분석 기간, 순위와 비중이 소폭 증감한 창업 사업화 모델

\* '09~'10년도 1~30위 비중은 82.8%, '17~'20년도 1~30위 비중은 68.7%

### ○ 중기부 창업지원 규모 및 지원기업 성과(중기부, 2021.4)

- 중기부 창업지원\* 예산\*\*은 '98년 82억원에서 '20년 8,492억원 규모로 급증
  - \* HW(보육공간, 집적지 조성 등) 및 SW(저변확대, 사업화지원 등). R&D/용자/투자 제외
  - \*\* 예산규모(억원): ('98) 82 → ('10) 1,439 → ('16) 3,766 → ('18) 6,911 → ('20) 8,492
- '09~'20년간 중기부 창업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2.7만개사를 대상으로 매출·고용 등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 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09년 2.96억원에서 '19년 6.0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 평균 고용인원은 '09년 3.9명에서 '19년 7.1명으로 약 1.8배 확대
  - \* 혁신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창업기업이 일반분야 창업기업보다 성과 우수

【 중기부 창업 지원기업 매출 및 고용성과 추이 】



- 중기부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보다 1.83배(창업 5년차 기준) 높게 나타남

【 전체 창업기업과 창업 지원기업 생존율 비교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전체	기업생멸행정통계 <sup>1)</sup>	63.7	52.8	44.7	36.7	31.2
지원기업	창업지원기업이력 성과조사 <sup>2)</sup>	92.5	86.1	75.4	65.0	57.1
생존율 차이(%)		28.8	33.3	30.7	28.3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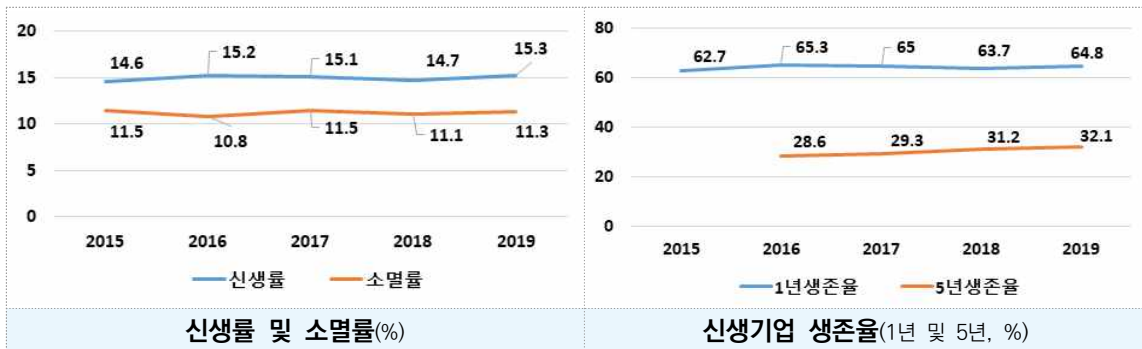
1)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통계청) / 2) 2019년 기준 창업지원기업이력성과조사(중기부)

## 02 창업 지원정책 변화 필요성

### ○ 기업의 신생률, 소멸률과 생존율

- 최근 5년간 기업의 신생률은 15% 내외, 소멸률은 11% 내외에서 소폭(0.5p% 이내)의 변동을 보였으며, 5년 생존율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기업의 신생률, 소멸률, 생존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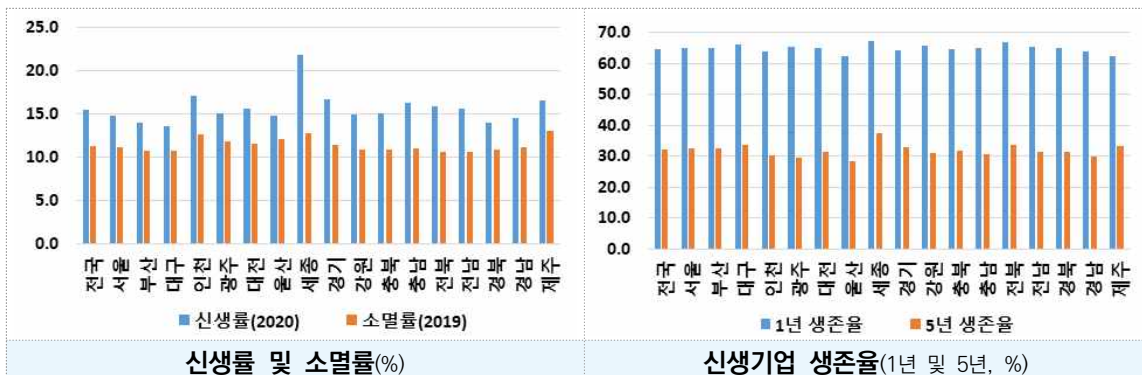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생률(%)	14.6	15.2	15.1	14.7	15.3
소멸률(%)	11.5	10.8	11.5	11.1	11.3
1년 생존율(%)	62.7	65.3	65.0	63.7	64.8
5년 생존율(%)	27.5	28.6	29.3	31.2	32.1

\* 각 연도별 기업생멸행정통계(통계청), 1) 신생률: (신생기업수/활동기업수)×100 / 2) 소멸률: (소멸기업수/활동기업수)×100 / 3) 생존율: (t-1년 신생기업 중 t년까지 생존한 기업수/t-1년 신생기업수)×100

-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대구, 경북, 부산 지역의 경우 신생률이 낮게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며, 울산, 광주, 경남은 전국 평균에 비해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지역임

【 지역별 기업의 신생률, 소멸률, 생존율 】





지역별	2020			2019			1년 생존율 (%)	5년 생존율 (%)
	활동기업수 (개)	신생기업수 (개)	신생률 (%)	활동기업수 (개)	소멸기업수 (개)	소멸률 (%)		
전국	6,820,850	1,058,842	15.5	6,526,544	736,393	11.3	64.8	32.1
서울	1,461,274	216,971	14.8	1,416,145	157,419	11.1	65.1	32.7
부산	439,033	61,626	14.0	425,613	46,120	10.8	64.9	32.4
대구	303,699	41,361	13.6	296,026	31,954	10.8	66.3	33.8
인천	365,175	62,574	17.1	349,166	44,121	12.6	63.8	30.4
광주	176,875	26,695	15.1	171,046	20,168	11.8	65.6	29.6
대전	182,770	28,477	15.6	175,607	20,230	11.5	65.0	31.3
울산	127,964	18,979	14.8	124,994	15,227	12.2	62.6	28.3
세종	38,435	8,392	21.8	34,276	4,389	12.8	67.4	37.6
경기	1,784,184	299,179	16.8	1,678,685	192,192	11.4	64.3	32.9
강원	199,115	29,874	15.0	190,426	20,767	10.9	65.8	31.1
충북	204,172	30,765	15.1	194,971	21,233	10.9	64.6	31.7
충남	265,705	43,398	16.3	250,195	27,463	11.0	65.1	30.7
전북	224,779	35,752	15.9	211,967	22,522	10.6	66.8	33.9
전남	219,445	34,249	15.6	207,370	22,044	10.6	65.5	31.6
경북	322,277	44,946	13.9	311,422	33,902	10.9	65.0	31.6
경남	403,797	58,729	14.5	390,210	43,808	11.2	63.9	29.9
제주	102,151	16,875	16.5	98,425	12,834	13.0	62.6	33.5

\* 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통계청)

- 산업별로는, 제조업 분야 신생률이 8.7%로 전체 산업(15.5%)의 절반 수준임

【 산업별·연도별 기업의 신생률 】

구분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활동기업수 (2020, 개)
전체	15.2	15.1	14.7	15.3	15.5	6,820,850
광업	13.7	10.7	11.8	13.5	14.3	1,485
제조업	9.7	9.0	8.9	8.9	8.7	550,644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20.5	21.6	28.0	35.6	31.4	69,770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7.9	7.9	10.3	10.6	8.8	10,558
건설업	11.3	11.3	11.2	11.5	11.5	465,343
도매 및 소매업	15.2	14.8	13.5	14.1	15.2	1,482,762
운수 및 창고업	9.2	9.0	8.5	10.5	8.3	591,571
숙박 및 음식점업	20.6	19.8	19.1	19.5	17.9	865,877
정보통신업	18.2	17.8	18.0	18.7	19.8	109,116
금융 및 보험업	19.0	16.9	15.6	18.0	16.8	22,267
부동산업	15.7	17.0	17.2	17.2	19.1	1,599,32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6.3	15.6	15.4	16.2	16.9	203,85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20.7	21.8	20.7	18.3	20.9	141,476
교육서비스업	18.1	18.6	19.5	20.3	19.5	179,487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7.5	7.0	6.7	6.7	5.6	77,622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26.1	22.4	19.6	20.1	17.4	129,502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15.9	15.5	15.8	16.8	14.7	320,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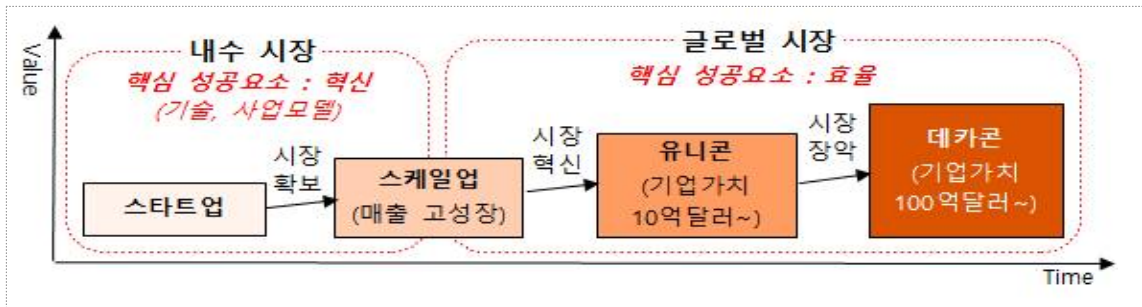
\* 연도별 기업생멸행정통계(통계청)

○ **국내 스케일업 기업 현황** 고성장기업 성과 우수, 비중 정체/주요국 대비 작음, 고성장기업 육성 필요

• 일반적으로 ‘스케일업 기업’은 고성장기업(매출 및 고용이 최근 3년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 이 중 업력 5년 이내 초기기업은 가젤기업으로 지칭)을 의미, 기업의 진화단계 상 스타트업은 스케일업을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KDB, 2020)

\*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선례를 보면, 스케일업 단계를 거쳐 단기간 내 빠른 성장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음(기업가치 1조원 평균 달성기간: 포춘 500대 기업 20년, 유니콘 6년)

【 기업의 진화 단계 】



\*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촉진방안(KDB미래전략연구소, 2020.08) 그림 보완

- 스케일업 기업은 생산 및 고용 증대에 있어 높은 성과를 보이며 국가 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KDB, 2020)

\* (생산) 실적과 성장률에서 전체 기업의 평균을 압도

- 글로벌 ICT 산업 내 스케일업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8.1억 달러(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7)
- 국내 스케일업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상장기업 기준 2,646억원('16)으로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을 크게 상회(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

\* (고용) 저성장 저고용 시대에 신규 일자리 창출의 원천 역할 수행

- 미국은 5%의 스케일업 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2/3를 창출(중소벤처기업부, '17)
- 영국은 6%의 스케일업 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54% 창출(과학기술정책연구원, '21)
- 한국은 9.8%의 스케일업 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33.4%를 창출(중소벤처기업부, '15)

\* 국내 경우도 스케일업은 고용과 매출, 수출 측면에서 중소기업 평균보다 높은 성과를 보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1) (중기벤처부, '17)

- 스케일업의 평균 고용은 '12년 33명에서 '15년 49명으로 48% 증가
- 매출의 경우도 기업당 '12년 57.2억 원에서 '15년 143.7억 원으로 151% 증가
- 기업당 평균 수출액은 '12년 20억 원에서 '15년 59.2억으로 195% 증가

- 최근 5년간 국내 스케일업 기업 추이를 살펴보면, 고성장기업 수는 '18년까지 증가하다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고성장기업 비중도 수년간 정체 상태임
  - 고성장기업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인 활동기업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①매출액과 고용이 모두, ②고용이 또는 ③매출액이, 연 평균 20% 또는 10% 이상 성장한 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모든 유형에서 최근 비중이 정체

**【 연도별 고성장기업 추이 】**

연도	20% 성장기업(업체수 개, 비중 %)						10% 성장기업(업체수 개, 비중 %)					
	매출액 & 고용		고용		매출액		매출액 & 고용		고용		매출액	
2016	4,100	1.9	7,471	3.5	18,239	8.5	13,066	6.1	21,341	9.9	37,304	17.4
2017	4,521	2.1	7,729	3.5	21,395	9.7	14,093	6.4	21,753	9.9	42,334	19.2
2018	4,600	2.0	8,154	3.6	20,343	8.9	14,884	6.5	23,638	10.3	42,101	18.4
2019	4,449	1.9	7,848	3.3	20,266	8.6	14,224	6.0	22,787	9.7	42,831	18.2
2020	4,221	1.8	7,465	3.1	18,863	7.9	13,155	5.5	21,821	9.2	38,835	16.3

\* 기업생멸행정통계(통계청), 연도별 고성장기업 수 및 비중(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전체 활동기업 대비)

- OECD 주요국과 비교 시 '19년 기준 한국의 고성장기업 비중은 하위권에 위치하며, '12년 이후 고성장기업 비중은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국 고성장기업 비중 추이 】**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 ('12~'16)	CAGR ('12~'19)
스페인	8.0	8.0	9.5	11.9	13.9	15.0	16.1	15.5	14.8	9.9
핀란드	10.3	11.7	11.8	12.0	11.5	13.0	14.0	15.5	2.8	6.0
네덜란드	9.8	9.9	9.6	10.7	12.3	13.9	16.3	14.5	5.8	5.8
포르투갈	7.9	7.9	8.6	11.0	12.8	14.2	14.5	13.9	12.8	8.4
스웨덴	13.5	13.7	12.3	12.1	12.8	13.6	13.9	12.6	-1.3	-1.0
영국	11.7	12.3	12.9	10.8	11.9	11.5	12.3		0.4	0.8*
헝가리	10.7	11.4	12.1	12.5	13.0	12.7	12.5	12.2	5.0	1.9
프랑스	8.8	9.6	8.5	8.6	8.6	10.7	11.6	12.1	-0.6	4.7
폴란드	8.8	8.1	9.5	10.3	11.7	12.9	12.5	11.6	7.4	4.0
이탈리아	7.1	7.3	6.8	7.6	9.2	10.4	11.3	10.9	6.7	6.3
노르웨이	10.6	11.4	11.5	12.2	11.4	11.4	10.3	10.5	1.8	-0.1
한국	12.4	12.2	11.6	10.5	9.8	9.7	10.3*	9.7*	-5.7	-3.4
덴마크	10.7	8.9	9.2	8.8	10.8	10.3	10.2	9.5	0.2	-1.7
독일	12.1		8.6	10.7	11.1	10.9	10.7	9.4	-2.1	-3.5
오스트리아	6.9	6.8	6.9	6.5	7.2	8.0	8.4	8.5	1.1	3.0
벨기에	8.6	8.2	7.9	8.1	8.5	9.6	7.4	8.1	-0.3	-0.9

\* OECD 통계(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최근 3년 내 고용이 연 평균 10% 이상 증가한 기업. 지주회사 제외)

\* 단, 한국 2018, 2019는 통계청(기업생멸행정통계) 기준임. 영국은 2019 데이터가 없어 2018 기준으로 대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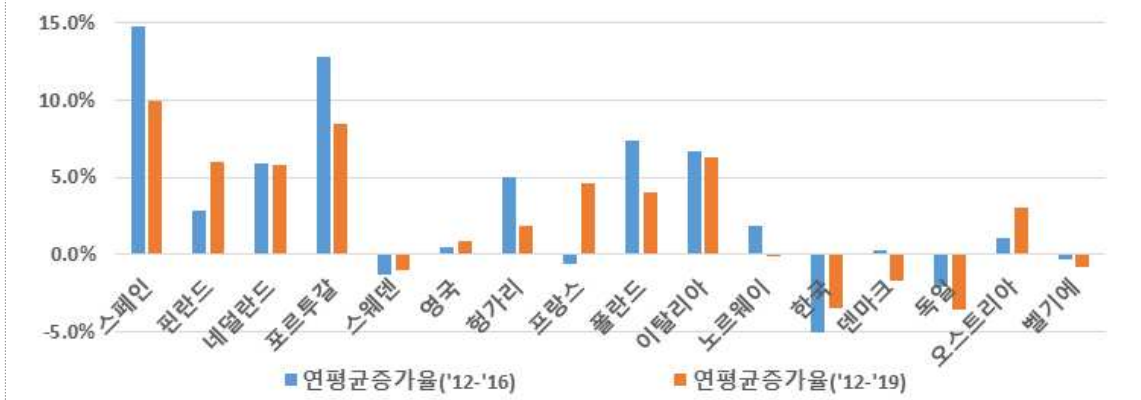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지만, 한국의 고성장기업 비중과 연평균증가율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임

\* 스웨덴, 영국 등도 고성장기업 비중 증가율은 낮지만, 고성장기업 비중은 한국보다 높음

**【 주요국 고성장기업 비중 】**



**주요국 고성장기업 비중(2019년)**



**고성장기업 비중 연평균증가율**

- 다만, 국내 고성장기업 중에서 업력 5년 미만의 가젤기업의 수와 비중은 수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스타트업을 통한 경제의 新성장동력 확보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연도별 고성장기업 및 가젤기업 수 추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고성장기업 수(개)	4,100	4,521	4,600	4,449	4,221
가젤기업 수(개)	1,099	1,187	1,159	1,245	1,208
비중(%)	26.8	26.3	25.2	28.0	28.6

\* 기업생멸행정통계(통계청), 1) 고성장기업: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활동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 / 2) 가젤기업: 고성장기업 중 사업자등록 5년 이하인 창업 초기기업(비중은 고성장기업 대비)

- 지역별 고성장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제주, 경남, 부산, 대구, 인천 지역에서 모든 유형의 고성장기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강원, 경북 지역은 고용증가 유형의 고성장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지역별·연도별 고성장기업 비중 추이 】

(연도별 비중(%), 2020년 기업수(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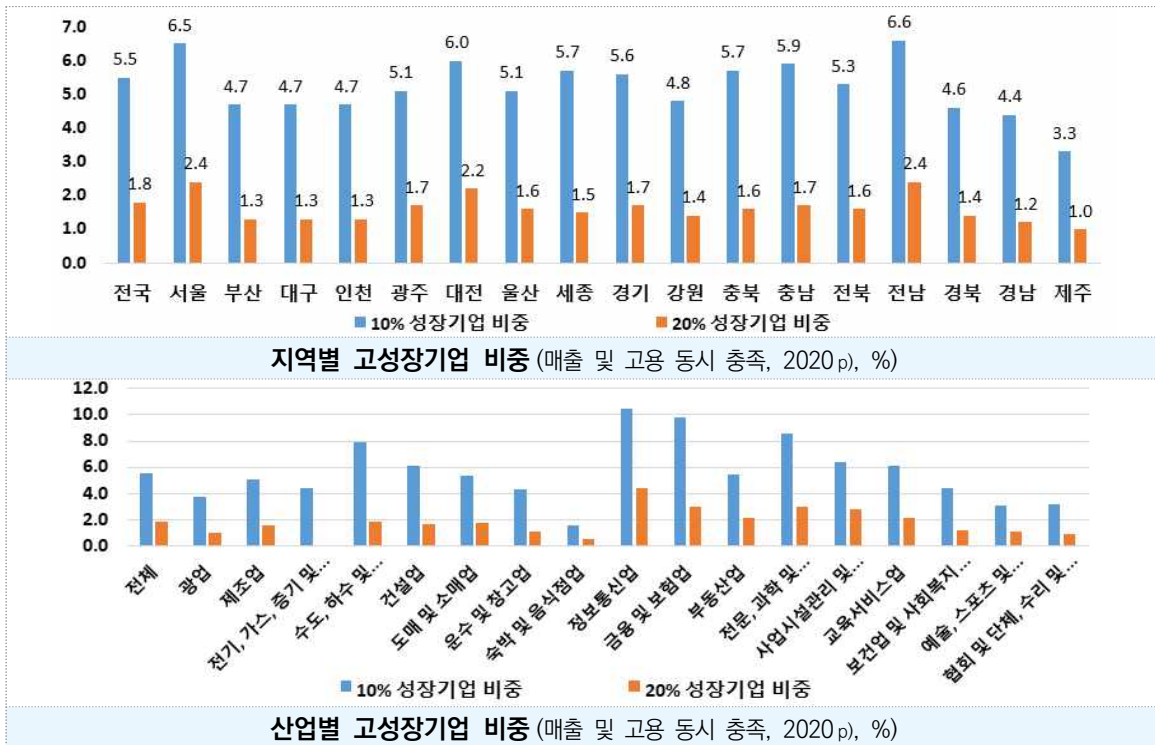
구분		10% 성장기업						20% 성장기업					
		2016	2017	2018	2019	2020 <sub>p</sub>	2020 <sub>p</sub>	2016	2017	2018	2019	2020 <sub>p</sub>	2020 <sub>p</sub>
전국	동시	6.1	6.4	6.5	6.0	5.5	13,155	1.9	2.1	2.0	1.9	1.8	4,221
	고용	9.9	9.9	10.3	9.7	9.2	21,821	3.5	3.5	3.6	3.3	3.1	7,465
	매출	17.4	19.2	18.4	18.2	16.3	38,835	8.5	9.7	8.9	8.6	7.9	18,863
서울	동시	6.8	7.0	7.4	7.0	6.5	3,719	2.3	2.5	2.7	2.5	2.4	1,372
	고용	10.7	10.7	11.3	10.7	10.2	5,883	3.9	4.0	4.3	4.1	4.0	2,283
	매출	18.1	19.7	19.3	19.0	17.1	9,858	9.1	10.3	9.7	9.5	8.9	5,097
부산	동시	5.7	5.9	5.2	4.7	4.7	648	1.8	1.8	1.5	1.3	1.3	183
	고용	9.7	9.3	8.9	8.4	8.1	1,121	3.7	3.4	3.0	2.6	2.6	361
	매출	16.0	17.4	15.7	16.3	14.8	2,057	7.6	8.4	7.4	7.3	6.6	919
대구	동시	5.6	5.9	5.6	5.1	4.7	410	1.7	1.9	1.6	1.5	1.3	115
	고용	9.5	8.9	9.5	8.5	8.0	697	3.1	3.4	3.0	2.6	2.5	220
	매출	16.4	17.0	15.5	15.6	14.1	1,226	7.6	8.2	7.0	6.5	6.5	570
인천	동시	5.6	5.9	6.3	5.3	4.7	596	1.6	1.7	1.8	1.5	1.3	159
	고용	9.2	9.3	10.0	8.9	8.1	1,032	3.0	3.0	3.2	2.8	2.6	336
	매출	16.3	17.9	17.7	16.0	14.0	1,773	7.4	8.0	7.8	6.9	6.2	787
광주	동시	5.3	6.1	5.9	5.5	5.1	261	1.8	2.1	1.9	1.7	1.7	87
	고용	9.0	9.7	10.6	9.4	8.8	451	3.3	3.8	3.7	3.5	3.2	162
	매출	17.3	17.9	16.3	17.7	15.2	779	8.9	9.4	8.3	8.2	7.8	401
대전	동시	6.4	6.6	6.6	6.6	6.0	324	1.9	1.9	2.0	2.4	2.2	121
	고용	10.0	10.0	10.7	10.0	9.7	529	3.3	3.4	3.8	3.7	3.5	192
	매출	17.1	18.7	18.1	18.9	17.5	952	7.9	9.4	8.6	9.3	8.9	486
울산	동시	5.1	4.8	5.2	5.4	5.1	237	1.6	1.5	1.3	1.8	1.6	76
	고용	9.2	8.6	8.4	8.6	8.4	391	3.1	2.9	2.7	3.2	3.0	142
	매출	13.1	14.6	14.3	16.5	15.7	733	6.0	6.7	6.4	7.7	7.2	337
세종	동시	5.1	6.8	6.4	5.6	5.7	59	1.7	2.2	1.6	1.6	1.5	16
	고용	8.4	9.9	10.1	7.8	8.7	90	3.6	3.1	3.4	2.6	3.0	31
	매출	15.2	17.3	16.9	16.8	14.5	151	8.3	10.6	8.3	8.9	7.8	81
경기	동시	6.5	6.9	7.0	6.2	5.6	3,694	1.9	2.1	2.0	1.8	1.7	1,125
	고용	10.5	10.6	10.9	10.2	9.4	6,203	3.6	3.5	3.6	3.3	3.0	2,002
	매출	17.8	20.1	19.5	18.2	16.3	10,730	8.4	10.0	9.2	8.4	7.7	5,053
강원	동시	6.2	6.2	6.1	5.5	4.8	229	2.1	1.9	1.8	1.6	1.4	66
	고용	9.2	8.9	9.4	9.0	7.9	381	3.4	3.2	3.3	3.0	2.6	123
	매출	20.3	23.1	20.0	19.5	17.1	820	11.6	12.9	9.9	10.0	8.7	418
충북	동시	6.2	6.5	6.4	6.5	5.7	424	1.8	1.8	1.7	2.0	1.6	119
	고용	9.6	10.2	10.1	10.0	9.4	704	3.5	3.8	3.2	3.3	3.0	221
	매출	18.1	20.5	19.6	19.5	17.8	1,331	8.4	9.7	9.4	9.5	8.6	644
충남	동시	6.0	6.8	6.7	6.2	5.9	563	2.0	2.5	2.1	1.8	1.7	164
	고용	9.9	9.8	10.7	9.8	9.7	932	3.7	3.9	3.7	3.5	3.3	314
	매출	17.8	20.2	18.2	19.2	16.5	1,588	9.2	10.8	9.1	8.8	7.6	729



전북	동시	5.2	5.4	5.2	5.6	5.3	324	1.6	1.7	1.7	1.6	1.6	99
	고용	8.2	8.4	8.8	9.1	8.8	541	3.0	3.1	2.9	3.0	2.8	175
	매출	16.7	19.0	17.8	19.3	18.1	1,111	8.9	9.9	9.1	9.9	9.1	559
전남	동시	5.2	5.8	5.9	6.5	6.6	449	1.9	1.8	1.6	1.8	2.4	165
	고용	8.7	9.8	9.7	9.6	10.1	683	3.3	3.3	3.2	3.0	3.5	240
	매출	17.8	20.5	18.5	22.6	21.7	1,467	9.9	11.3	9.4	11.6	11.5	778
경북	동시	4.8	5.2	5.1	4.9	4.6	499	1.6	1.6	1.5	1.5	1.4	148
	고용	8.7	8.2	8.8	8.3	8.0	866	3.1	2.9	2.7	2.7	2.4	265
	매출	16.6	19.1	18.1	18.7	16.3	1,764	8.4	9.9	8.8	9.1	8.0	867
경남	동시	5.1	5.2	5.4	5.1	4.4	629	1.5	1.6	1.5	1.4	1.2	179
	고용	9.0	8.6	9.0	8.1	7.7	1,109	3.0	2.9	2.9	2.6	2.4	340
	매출	15.3	17.2	17.2	17.6	15.3	2,199	7.2	8.5	7.9	7.7	6.9	992
제주	동시	6.6	5.3	4.7	4.0	3.3	90	1.6	1.1	1.8	1.4	1.0	27
	고용	9.3	8.3	9.0	7.7	7.7	208	3.0	2.8	3.6	2.9	2.1	58
	매출	22.9	20.6	15.2	13.0	11.0	296	12.1	11.0	8.0	6.9	5.4	145

\* 연도별 기업생멸행정통계(통계청), 1) 동시: 매출액 및 상용근로자 기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기준을 모두 충족 / 2) 고용: 상용근로자 기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기준 충족 / 3) 매출: 매출액 기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기준 충족

### 【지역별 및 산업별 고성장기업 비중】



- 고성장기업 비중이 낮다는 것은 지역 내 주력산업 구조적 특성에 따라 산업 성장이 정체된 성숙기 이후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과 연관지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매출액 고성장기업에 비해 고용 고성장기업 비중이 낮은 지역은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03 창업 지원정책 변화 방향

### ○ 창업 지원 방향: 스케일업·지역유망 스타트업 중심으로 민간협업, 정책 연계성 강화

-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 주도로 한국 창업 생태계는 제1벤처붐 실적을 2배 이상 경신하며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고성장기업 스케일업과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부문은 저조한 편

\* 신설법인(만개): ('00) 6.1 → ('20) 12.3 기술창업(만개): ('17) 19.9 → ('20) 22.9

\* 신규벤처투자(조원): ('00) 2.0 → ('21) 7.7

- (스케일업) 생산·고용증대 등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고성장기업 비중은 '18년 이후 정체 상태이며, OECD 주요국과 비교시 하위권에 위치

\* 스케일업 비중(%): ('16)9.9, ('17)9.9, ('18)10.3, ('19)9.7, ('20)9.2

\* 국가별 스케일업 비중 (%,'19): (한국)9.7,(네덜란드)14.5, (스웨덴)12.6, (프랑스)12.1

- (지역 창업생태계) 지역 주력산업 쇠퇴지역은 기업 신생률\*이 낮게 나타나 창업활동이 부진하며, 생존률\*\* 등 질적 수준도 전국 대비 저조하여 지역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新성장 동력 확보 필요

\* 신생률(%): 대구(13.6), 경북(13.9), 부산(14.0), 전국(15.5)

\*\* 지역 주력산업 쇠퇴지역 생존률 : 울산(28.3), 광주(29.6), 경남(29.9), 전국(32.1)

#### 【 정부의 창업 생태계 조성 추진 노력 】

<b>박근혜 정부</b> ( '13.3.25~ '17.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경제, 국정기조로 제시, 기술창업을 핵심아젠다로 설정</li> <li>• 창업자 연대보증 해소 등 혁신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li> <li>• 모태펀드 및 성장사다리 펀드 등 벤처에 정책 자원 대폭 투자</li> <li>• 창경센터 설립, 공인인증서 등 창업규제 개선, TIPS 시작</li> <li>• 신생벤처·투자회사 밀집화(구글캠퍼스, 팁스타운,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li> </ul>
<b>문재인 정부</b> ( '17.5.10~ '22.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 창업 국가 건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li> <li>• 중소기업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정부 창업지원사업 대폭 증가</li> <li>•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 등 투자 자금 대폭 증가</li> <li>• 스케일업 지원 위한 간접금융 연계, 전용펀드 신설, 글로벌 진출 활성화</li> <li>• 규제샌드박스의 활성화</li> </ul>
<b>윤석열 정부</b> ( '22.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생적 성장·혁신기반 중심으로 中企 지원 패러다임 전환</li> <li>• 민간 주도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li> <li>•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 해외 창업 인프라 확충, 외국인 창업 지원</li> <li>• 초격차·디지털 스타트업 집중 지원: 초격차 1000 프로젝트, 민간 모펀드 조성</li> </ul>

\* 한국 창업생태계의 진단과 지원방향(STEPI, 2022.05) 참고 보완

-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新정부는 기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정책 지원 기조를 전환을 선언하며, 내년 부처별 예산 증가폭을 크게 낮추고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 예고\*

\* 신정부 업무보고 : 한시지출 정비, 우선순위 조정, 사업구조개편 등을 통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추진 (기획재정부, '22.7)

- 창업정책 방향도 민간주도 스케일업, 초격차·디지털 스타트업 집중 지원 등 민간 주도의 혁신 성장 중심으로 지원 방식 전환

\* 정부 중심, 생존 중심, 양적 확대, 저변확대 → 민간주도, 질적 성장, 혁신성장

- 또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민간 투자 역시 감소\*되면서 전반적인 창업환경의 악화가 예상됨

\* 글로벌벤처투자(억 달러):('21.4Q) 1,778, ('22.1Q) 1,416, ('22.2Q) 1,085 (CB Insights, '22.7)

- 이러한 창업 생태계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창업지원 분야 중진공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영역 확대 필요 분야와 기존 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필요

⇒ (지원확대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육성, 지역특화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스케일업 규제 혁신

⇒ (지원방식) 기관 내 다양한 창업지원 수단(융자·판로·수출 등)의 고도화 추진을 통한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민간,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 시너지 효과 제고

구분	현 황	지원 확대 분야 및 발전방향
창업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생태계 양적 성장했으나,</li> <li>•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비중 저조</li> <li>•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 강화</li> <li>• 지역 특화 유망 창업 발굴·육성</li> </ul>
정책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주도 직접 지원 축소</li> <li>• 민간 투자 감소로 창업환경 악화</li> <li>•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중심으로 창업 정책 지원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내 다양한 창업 수단 고도화를 통한 정책 연계성 강화</li> <li>• 민간,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 시너지 창출</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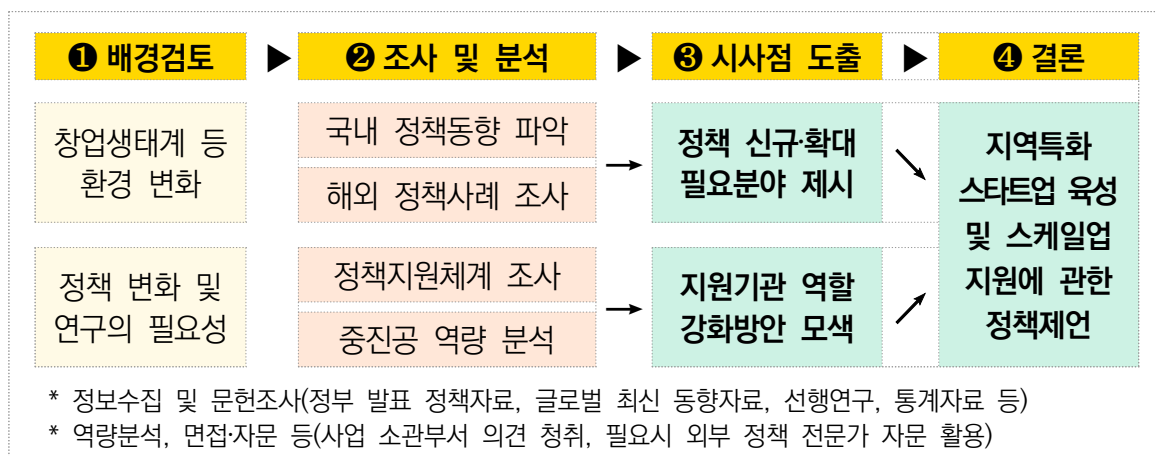


## 04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창업 정책의 취지는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임
    - 포스트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디지털·친환경 대전환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창업 트렌드도 변화함에 따라,
    - 최근의 정책 방향도 신산업 분야 혁신창업 및 기술기반 창업의 강조,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지역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등 저변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음
  - 스타트업의 양적 확대도 중요한 정책 목표이지만,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지원 강화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
    - \* 스타트업은 스케일업(고성장) 과정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 \* 세계 주요국에서도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케일업 육성 정책을 채택 중
    -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유망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질적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에 대한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필요
      - \*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고성장하는 스케일업 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국민경제적 기여도 높음
- ⇒ 지역특화 스타트업의 육성 및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필요
- \* 정책지원 신규확대 필요분야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지원기관 역할강화 방안 모색

#### 【연구모형 설계】



## II 국내외 창업 지원정책 동향 분석

### 01 국내 창업 지원정책 현황

#### ○ 근거법령

- 창업정책의 근거법령은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며, 중소기업 설립 촉진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1996년 중소기업청 창립 이후 창업정책은 자금지원, 창업보육센터 설립, 창업 편의성 제고 등에 주력하였으며,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창업정책과 벤처정책이 구분된 영역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

\* 본 연구에서는 벤처정책(투자, 보증 등)을 제외한 창업정책 위주로 접근(단, 연계방안은 검토)

#### 【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 개요 】

구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86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년)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총괄과)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
목적	중소기업 설립 촉진, 성장 기반 조성으로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에 기여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 전환, 벤처창업 촉진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주요내용	창업의 정의, 적용 범위, 창업지원계획, 창업촉진사업, 창업정보 제공, 창업보육, 창업교육, 창업기획자, 창업절차(특례) 등	벤처기업 요건, 벤처기업 육성기반 구축, 자금공급 원활화(벤처투자/보증/조세특례),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 입지 공급 원활화

- 중기부는 ‘제조산업 기반의 성장경제’에서 ‘혁신창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의 시대변화를 반영, 창업환경 변화에 맞춰 35년만에 전면개정 발표(‘21.12.21)

\* 제55회 국무회의(‘21.12.21) 의결 → ‘21.12.28 공포 → ‘22. 6.29부터 시행

- 창업지원법의 목적을 “창업국가 건설”로 명시하고, 창업생태계의 성장구조를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 →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 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순으로 조문 체계를 재구성

【 중소기업창업법 주요 개정사항('22.6.29 시행) 】

<b>부담금 면제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 창업기업 공장설립 시 12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3년 → 7년 (즉시시행)</li> <li>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단, 물이용 부담금은 3년간) 면제</li> </ul>
<b>신산업 창업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산업 분야는 산업 기반이 약하고 상용화 기간이 긴 점을 감안,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li> <li>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등 명시적 규정 신설 (팁스 등의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내창업분사창업 촉진)</li> </ul>
<b>글로벌화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li> <li>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li> </ul>
<b>재창업 지원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 위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도전·재창업 부담·규제 개선, 재도전·재창업 지원사업 성과관리체계 강화</li> </ul>
<b>창업환경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문화와 분위기 확산</li> <li>창업할 때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시간·비용 등의 부담 완화</li> </ul>
<b>정책효율성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분산된 창업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업 강화</li> </ul>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1.12.21)

○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 중소기업창업법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중기부장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함
-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년간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최초의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1~’23)’을 수립(중기부, ’21.8)

【 창업지원계획 추진전략 및 과제(’21~’23) 】

<b>비전</b>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 혁신 창업국가	
<b>목표</b>	<b>현 재</b>	<b>미 래 (’21 ~ ’2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창업기업 : 연간 22.9만개</li> <li>▶ 신산업 창업지원 : 예산의 20%</li> <li>▶ 기업가정신순위 : 세계 9위</li> <li>▶ 창업생존율(5년) : 3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창업기업 : 연간 28만개</li> <li>▶ 신산업 창업지원 : 예산의 40%</li> <li>▶ 기업가정신순위 : 세계 4위</li> <li>▶ 창업생존율(5년) : 40%</li> </ul>
<b>전략</b>	①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②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창업 육성
	③ 지역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④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⑤ 창업정책 총괄·관리 강화	⑥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 출처: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중기부, 2021)

○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중기부 공고 제2021-683호, 2022.1.4.)

- 법 제5조(정보의 제공)에 의거, 정부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야 하며, '22년 기준으로 총 378개의 사업(총 예산규모 3조 6,668억원)을 안내하고 있음

**【연도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추이】**

(단위: 개,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b>대상사업</b>	<b>65</b>	<b>62</b>	<b>60</b>	<b>69</b>	<b>90</b>	<b>193</b>	<b>378</b>
중앙부처	65	62	60	69	90	89	100
광역지자체	-	-	-	-	-	104	152
기초지자체	-	-	-	-	-	-	126
<b>지원예산</b>	<b>5,764</b>	<b>6,158</b>	<b>7,796</b>	<b>11,181</b>	<b>14,517</b>	<b>14,623</b>	<b>36,668</b>
중앙부처	5,764	6,158	7,796	11,181	14,517	13,812	35,578
광역지자체	-	-	-	-	-	811	885
기초지자체	-	-	-	-	-	-	205

\* '21년부터 광역지자체 사업 포함, '22년부터 기초지자체 사업 및 용자사업 포함 공고

- 사업 유형별로는 용자사업 예산 규모가 5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업화(24.9%), 기술개발(12.6%), 시설·공간보육(4.2%) 순으로 나타남('22년)

**【'22년 사업 유형별·부처별 지원예산】**

(단위: 개,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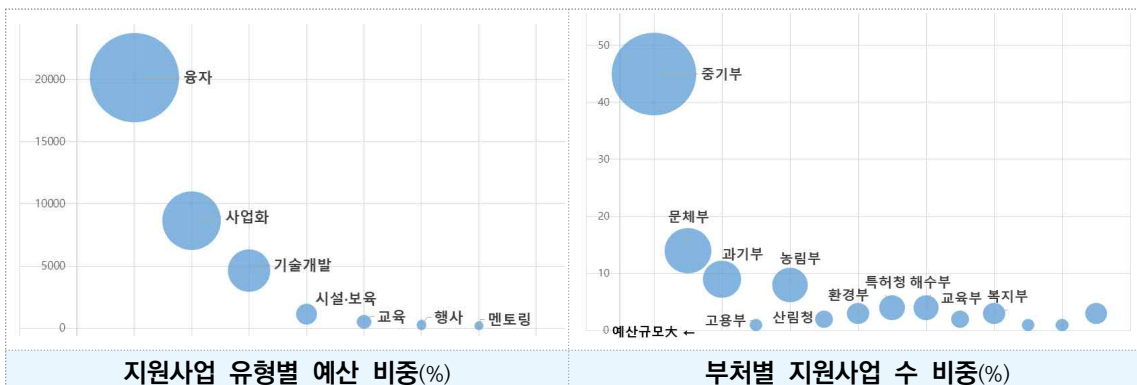
구분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공간·보육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용자	총합계	비중
중기부	7,014	4,436	1,136	337	8	201	20,000	33,131	90.4
문체부	627	-	-	-	-	-	-	627	1.7
과기부	243	134	-	123	34	-	-	534	1.5
고용부	319	-	-	-	-	-	-	319	0.9
농림부	156	-	-	-	41	6	-	202	0.6
산림청	-	-	-	-	-	2	180	182	0.5
환경부	115	-	-	-	-	45	-	160	0.4
특허청	17	-	-	19	118	-	-	153	0.4
해수부	78	40	-	-	-	3	-	121	0.3
교육부	37	-	-	22	-	-	-	59	0.2
복지부	10	27	-	-	9	-	-	46	0.1
농진청	36	-	-	-	-	-	-	36	0.1
법무부	-	-	-	8	-	-	-	8	0.0
국토부	-	-	-	0	1	-	-	1	0.0
<b>소계</b>	<b>8,651</b>	<b>4,638</b>	<b>1,136</b>	<b>509</b>	<b>209</b>	<b>257</b>	<b>20,180</b>	<b>35,578</b>	<b>97.0</b>
지자체	481	1	413	60	63	31	40	1,090	3.0
<b>총합계</b>	<b>9,132</b>	<b>4,639</b>	<b>1,549</b>	<b>569</b>	<b>272</b>	<b>288</b>	<b>20,220</b>	<b>36,668</b>	<b>100.0</b>
<b>비중</b>	<b>24.9</b>	<b>12.6</b>	<b>4.2</b>	<b>1.6</b>	<b>0.7</b>	<b>0.8</b>	<b>55.1</b>	<b>100.0</b>	

- 중앙부처 지원예산이 32조 5,578억원으로 전체의 97%를 차지, 부처별로는 창업지원정책을 실질 주관하는 중기부(3조 3,131억원) 예산 규모가 절대적임
- \* 용자사업 제외 시에도 중기부가 1.31조원 규모로, 전체(용자 제외 1.64조원)의 79.8%를 차지
- 부처별 주요 정책 분야를 분석해보면, 중기부가 中企 창업 쏠 부문의 정책을 광범위하게 전담하고 있으며, 이어 문체부, 과기부, 고용부, 농림부 등에서 소관 산업분야에 특화된 정책을 한정적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있음

**【 부처별 주요 창업지원 정책 분야 】**

부처	주관 분야	주요 창업지원 정책	사업비중(%)	예산비중(%)
중기부	中企 창업지원 쏠 부문	창업자금 융자, 창업성장 R&D, 창업 단계별 패키지 지원, 공간보육, 교육, 컨설팅, 글로벌 창업 등 광범위한 정책	45.0	93.1
문체부	관광문화 특화	관광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벤처창업 육성, 공모전 등	14.0	1.8
과기부	과학기술 특화	대학 실험실 특화형 창업, 창업교육, ICT스타트업 육성 등	9.0	1.5
고용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0	0.9
농림부	농식품 특화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 기술평가, 크라우드 펀딩 등	8.0	0.6
산림청	산림분야 특화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등	2.0	0.5
환경부	환경분야 특화	에코스타트업(녹색분야) 육성, 환경창업대전 등	3.0	0.4
특허청	지식재산 특화	IP 기술경영 컨설팅, IP 기반 창업교육, IP서비스 지원 등	4.0	0.4
해수부	해양수산 특화	해양수산 창업투자,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등	4.0	0.3
교육부	청년교육 특화	대학 창업교육 체제 구축, 학생 창업유망팀 창업교육	2.0	0.2
복지부	보건산업 특화	사업화 컨설팅, 바이오헬스 투자연계 R&D 등	3.0	0.1
농진청	농업분야 특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영농 정착 및 농촌유입 유도)	1.0	0.1
법무부	외국인 창업	창업이민인재양성(국내 체류 외국인 창업교육)	1.0	0.0
국토부	공간정보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컨설팅·교육	3.0	0.0
계	14개 중앙부처, 100개 사업, 3조 5,578억원 기준		100.0	100.0

**【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비중 】**



### ○ 중기부 소관 창업지원사업 분석

• 창업지원 분야 신규 정책 검토에 앞서, 현재 전체 창업지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기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음

\* 지자체의 경우 예산 비중이 3% 수준이며(사업화 및 시설·보육 위주), 타 부처 정책은 특정산업 부문에 특화 운영되고 있으므로, 중기부 창업지원정책 위주로 검토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음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중 단위사업 예산규모가 약 10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위주로 재분류한 결과, 예산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용자와 R&D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화 유형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중기부 소관 주요 창업지원사업】

유형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억원)	주관기관
사업화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983	창진원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이내	사업화자금, 특화프로그램	925	창진원
	창업도약패키지	업력 3~7년 이내	사업화자금, 대기업 연계	900	창진원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 업력 3년 이내	one-stop 패키지 지원시스템 (자금, 교육, 코칭, 공간, 판로 등)	845	중진공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사업	팁스 R&D 선정, 업력 7년 이내	시제품 제작, 해외진출·마케팅, 후속사업화 자금 (포스트팁스)	778	창진원
	혁신분야(BIG3) 창업패키지멘토링	BIG3 분야, 업력 7년 이내	사업화자금, 기술경영 멘토링, 연계지원(R&D, 자금, 보증 등)	607	창진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비대면 분야, 예비~업력 7년 이내	사업화자금, 특화프로그램	450	창진원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업력 7년 이내	사업화자금,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 판로개척·투자연계	300	창진원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투자실적(20~100억) 보유, 업력 7년 이내	시장개척자금, 후속지원, 연계지원	300	창진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일부 7년) 이내	사업화자금, 교육 및 멘토링, 보육공간	168	창진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사내벤처팀, 업력 3년 이내 분사창업기업	사업화자금, 후속지원금	150	창진원
	K-스타트업센터 사업	해외진출 희망, 업력 7년 이내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멘토링, 입주공간 제공	134	창진원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만 39세 이하, 업력 3년 이내	세무회계, 기술보호	121	창진원
	글로벌창업 사관 학교	D.N.A 분야, 예비~업력 3년 이내	D.N.A 특화교육, 창업성공사업화, 글로벌 프로그램 패키지	109	중진공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글로벌 진출 희망, 업력 7년 이내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글로벌 대기업과의 테스트베드	99	창진원



유형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억원)	주관기관
기술 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업력 7년 이하, 매출액 20억원 미만	연구개발비(R&D) 지원	4,436	기정원
시설·보육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	민간공공기관 및 단체	시제품 제작양산 등 제조창업을 지원하는 공간 구축·운영 경비	437	창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업력 7년 이내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	364	창진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예비)창업자	대학연구소 등을 보육센터로 지정, 초기창업자 보육 지원	122	창업보육 협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창업교육, 점포경영 체험실습, 사업화자금	198	소진공
융자	창업기반지원자금	업력 7년 미만	정책자금 융자	13,000	중진공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업력 7년 미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정책자금 융자	7,000	중진공

\*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100억원 이상 사업 발체, 유형별 예산규모가 큰 순서로 재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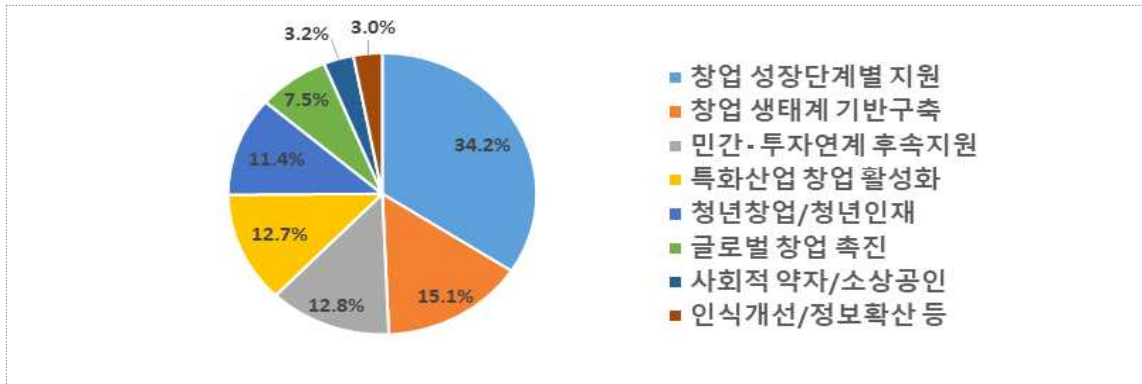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단, 융자 및 R&D 제외)을 세부 정책분야로 재분류한 결과, 창업 성장단계별 패키지 지원예산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 【중기부 소관 창업지원사업 재분류】

정책분야	해당 사업	사업수(개) (비중, %)	예산(억원) (비중, %)
창업 성장 단계별 지원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3년), 창업도약패키지(3~7년), 재도전성공패키지(재창업)	4 (9.5)	2,977 (34.2)
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창업존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1인 창조기업 활성화	8 (19.0)	1,313 (15.1)
민간투자 연계 후속 지원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사업(포스트팁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여성벤처창업 케어프로그램,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 컴업 2022	5 (11.9)	1,116 (12.8)
특화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및 멘토링,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100	3 (7.1)	1,107 (12.7)
청년창업 및 청년인재 양성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청년 초기기업),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3 (7.1)	993 (11.4)
글로벌 창업 촉진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글로벌창업사관학교, K-스타트업센터,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5 (11.9)	653 (7.5)
사회적 약자 및 소상공인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장애인 창업보육실 운영,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여성창업 경진대회	8 (19.0)	274 (3.2)
인식개선 및 정보확산 등	청소년 비즈쿨, 기업가정신기반 구축·확산, 실전창업교육,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도전 K-스타트업,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6 (14.3)	263 (3.0)
<b>총 합계</b>		<b>42</b> (100.0)	<b>8,695</b> (100.0)

\*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대상 사업을 정책목적에 따라 재분류(단, 융자 및 R&D 제외)

【 중기부 소관 창업지원사업 재분류 】



-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에 이어,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민간·투자 연계 지원, 특화산업 창업, 청년창업·청년인재 양성, 글로벌 창업 순서로 비중이 높았으며, 사회적 약자, 인식개선까지 전 부문에 걸쳐 다수의 정책이 포진하고 있음

\* 단일부처 소관 하에 체계적 정책 마련으로, 세부사업간 중복성의 소지는 낮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 정책이나, 지역 유망 스타트업 육성 정책, 제조업 창업 촉진을 위한 특화 정책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① 스케일업 지원 정책은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정도이며,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의 경우에도 업력 기준으로만 사업대상을 구분하고 있어, 매출 및 고용 규모 등 기업의 체계적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정책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국내 고성장기업 비중은 OECD 하위권, 수년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 강화 필요

② 지역기반 스타트업 육성 관련 정책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설·보육사업 위주이며, 지역의 산업구조적 특성 및 특화산업에 기반한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육성 및 스케일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은 전무한 실정임

\* 지역 주력산업 쇠퇴 지역 기업 신생률 저하, 창업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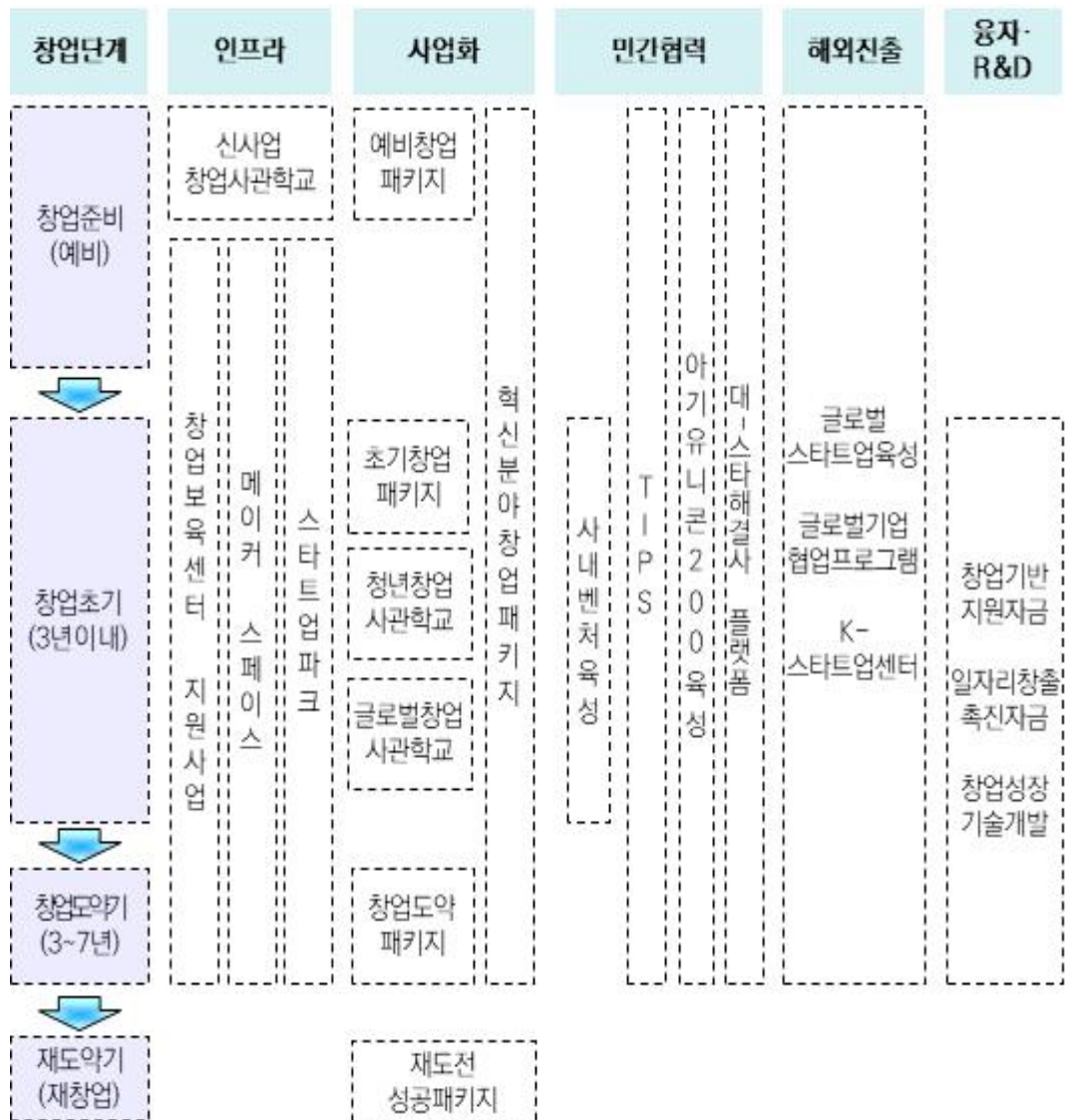
③ 제조업 창업에 특화된 지원 정책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이 50억원 수준이며, 그 외 연관된 사업으로는 민간·공공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제품 제작 공간 구축을 지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437억원)이 유일함

\* 제조업 신생률 지속 감소세, 국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분야 혁신창업 촉진 필요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을 창업단계별과 지원유형별로 재분류한 결과, 창업초기 단계 사업화 유형에 가장 많은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창업기업의 도약 단계 스케일업 지원정책은 부족한 편임
- 창업기업의 도약 단계 지원정책은 창업 도약패키지(900억) 정도이며, 스케일업 지원정책은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300억), 팀스(778억) 정도로 창업초기 데스밸리 극복 후 스케일업 및 유니콘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지원정책은 부족

【 창업단계별 창업사업 분포도 】



## 02 해외 주요국의 지원정책 현황

### ○ 미국의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지원 정책 (※ 출처: 산업연구원(20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8), 중진공(2021) 외)

• 미국은 1953년에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창업·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자금지원, 수출, 연방정부 조달 참여, 기술개발, 기업환경 조성, 경영위기 지원 프로그램 등  
- 실리콘밸리 등 민간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가운데, '11년 오바마 정부는 '스타트업 아메리카' 정책을 추진하여 종합적인 정책 시행(산업연구원)

#### 【 스타트업 아메리카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자본접근성 확대	▶ 임팩트 투자 펀드, 초기단계 투자펀드 추가 조성(각 10억 달러) * 기존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 외 추가 조성 ▶ 스타트업 자본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허용 등
멘토링	▶ 중소기업청-에너지부 공동, 청정에너지 스타트업에 경험있는 멘토를 연결 ▶ 재향군인들의 고성장 사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신설 ▶ 대학교에 엔지니어링에 관한 혁신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센터 건립
규제개선	▶ 특허심사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 특허처리 제도 신설 ▶ 국내에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에게 비자 제공
혁신 가속화	▶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시장으로 이전하도록 지원 ▶ 과학자들의 스타트업 시작에 도움을 주는 Innovation corps 프로그램 신설

\* 출처: 산업연구원(2019), 중진공(2021)

- 민간 부문에서는 거대 IT기업\*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하고,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멘토링, 교육을 제공(산업연구원)

\* 5대 IT기업(구글, MS, 아마존, IBM, 애플)은 '12~'16년 동안 420개 스타트업에 투자

\*\* 기업경영자벤처투자자대학연구재단 등으로 구성,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지원

• '14년에는 '스케일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를 발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고성장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정책으로 전환(KIAT)

\* 정책 도입배경(美 중기청장): "92%의 새로운 일자리는 기존 기업의 확장에서 창출된다"

- 미국 전역에서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연 매출 15~50만 달러 중소기업을 선정, 경영교육, 경영자문, 네트워킹 중심의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추진

**【 스케일업 아메리카 주요 프로그램 】**

구분	주요 내용
기업가정신 교육 커리큘럼	▶ 성장지향형 기업가 또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제공
경영지원	▶ 시장분석, 경영전략 수립, 마케팅 등에 대해 1대1 멘토링, 기술경영 지원
금융 접근성	▶ 대출, 투자자와의 매칭, 엔젤 및 벤처투자 유치 등 자본 접근성 확대
네트워킹	▶ 지역 CEO, 생산자, 공급자,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 강화

\*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8)

-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서 지역별로 분포하는 커뮤니티 파트너 기관\*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정부는 이러한 파트너 기관들을 지원하는 방식

\* 13개주 총 15개 지정 운영(경제 개발 기업, 중소기업 개발센터, 민간기업 등 다양한 형태)

- 한편, 실리콘밸리은행(SVB: Silicon Valley Bank) 등에서 벤처대출 제도를 운영, 일반은행과 차별화하여 벤처생태계에 특화된 사업모델 보유(KIAT, 산업연구원)
- 초기 벤처투자를 받은 성장 유망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대출, 후속투자 전까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지분 희석을 최소화
- 대출 공여기관은 높은 신용위험의 대가로 소액의 워런트(신주인수권 등)를 취득하여 기업 성장 이후 M&A, IPO 시 추가적인 수익창출 시도
- 벤처생태계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 제공: 벤처기업에게는 성장 단계별 금융서비스,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필요한 단기융자 제공, 기업 근로자에게는 모기지론/주식담보대출/예금·신용카드 등의 서비스 제공
- 벤처캐피탈 업계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투자정보 공유, 벤처대출과 투자가 보완적 관계 형성하며 벤처투자액의 약 15%인 126억달러('17) 규모를 차지

○ **유럽의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지원 정책** (※ 출처: 산업연구원(201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 외)

- EU차원에서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수립, 자금지원은 주로 EIF(European Investment Fund)를 활용하여 보조금, 보증,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네트워킹 서비스(역내외 시장진출 지원, 네트워킹 기회, 전문가 자문 등) 등을 제공(산업연구원)
- 개별국가 단위에서도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 관련 제도를 운영 중
- \* 독일: (자금지원)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대출, 보조금, 보증, 민간투자자 인센티브 제공 등, (멘토링)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투자자와 기업가의 연결 지원 등
- \* 프랑스: IT·하이테크 스타트업 지원정책 ‘라프렌치테크’(행정절차 간소화, 제품 상업화, 보조금 등)

**【 유럽의 (기술)스타트업 주요 지원제도 】**

구분	내 용
EU	▶ (자금지원) 혁신아이디어 및 제품 중소기업에 최대 5만유로 지급 ▶ (기타) 비즈니스코칭 무료제공, 다양한 엑셀러레이터 서비스 지원
영국	▶ (자금지원) 초기 스타트업에 최대 2.5만파운드 대출(대출기간 1~5년, 이자 6%) ▶ (세제혜택) 초기 기술스타트업에 연간 투자금액 10만파운드 한도내 소득세 50% 감면 ▶ (기타) 12개월 동안 무료 멘토링 제공
스웨덴	▶ (자금지원) 매년 75개의 혁신아이디어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최대 5만크로나 지급 ▶ (세제혜택) 순매출 8천만크로나이면서 50인 미만 스타트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스톡옵션은 과세소득으로 미간주하며, 고용주 급여세 100% 감면
네덜란드	▶ (자금지원) 설립 5년 이하 혁신아이디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출지원
프랑스	▶ (자금지원) 초기 혁신 스타트업에 최대 4.5만유로 지원 ▶ (세제혜택) 설립 8년 이내 R&D분야 투자 스타트업에 세금 감면(첫해 100%, 다음해 50%) ▶ (기타) 12개월 동안 인큐베이터 공간, 멘토링 등 지원
독일	▶ (자금지원) 매년 두차례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최대 3.2만 유로 지급, 3년 미만의 스타트업(High-tech)에게 최대 1백만유로 투자 등 ▶ (세제혜택) 신생 혁신스타트업에 3년동안 투자한 엔젤투자자에게 세금감면
아일랜드	▶ (자금지원) 혁신아이디어 스타트업에 장학금, 멘토링 등을 위해 최대 1.5만유로 지급 ▶ (세제혜택) 12.5%의 낮은 법인세 적용 등 ▶ (기타) 사무공간, 인큐베이터 시설, 네트워킹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스페인	▶ (자금지원) 혁신 프로젝트 스타트업에 1만유로 지급 ▶ (세제혜택) 신생 스타트업에 투자한 엔젤투자자에게 20% 세금감면(단, 5만유로 미만) ▶ (기타) 마드리드 및 바르셀로나에 사무공간 지원, 멘토링 제공

\* 출처: 산업연구원(2019)

- 유럽 주요국에서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정책으로 전환, 확장하는 추세임

**【 유럽 주요국의 스케일업 지원정책 】**

구분	세부내용	
EU	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16)	• 제도 완화, 자금 접근성 제고, 혁신기반 강화 등 스타트업·스케일업 성장 생태계 구축
	VentureEU('18)	• 최대 65억 유로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여 디지털, 생명 과학, 의료 기술, 자원 및 에너지 등에 집중 투자
영국	Scale Up Institute('14)	• 스케일업 육성 전담기구로 교육, 정보공유, 네트워킹 중심으로 지원 * 현황/생태계 진단 조사연구, 데이터 허브(기업/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Tech Nation('11)	•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제공 * Rising Star → Upscale → Future Fifty
	Growth Accelerator	• 3년간 26,000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2억5천만유로) * 성장진단 → 코칭(재정/성장을 위한 혁신방안/사업개발) → 전문가 네트워킹
독일	German Accelerator('12)	• 고성장 잠재력을 가진 독일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지원 - (지원자격) 상용화(직전) 제품 개발 또는 지적재산권(IP) 보유기업 - (지원분야) SaaS, SW플랫폼, HW, 반도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프랑스	Pass French Tech('14)	• 국내·외 스타트업의 고성장을 패키지형으로 지원
	French Tech Ticket('15)	• 해외 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패키지형 지원 방안
	French Tech Visa	• 창업자, 해외인재, 투자자 등의 비자 발급 및 거주허가 절차 간소화
덴마크	Gazell Growth ('07~'08)	• 소수의 중소기업 선정(종업원/매출/고객사) → 해외시장 진출 지원 * (1단계) 경영전략(가치측정/시장분석/시장진입), (2단계) 판매전략
	Accelerace('08)	• 초기기업 대상(고용/시제품, 매출조건 없음), 경영전략 및 판매전략
네덜란드	The Growth Accelerator('08)	• 5년간 100개사 지원, 매출 2천만유로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 목표 * 고성장전담 컨소시엄(재정조직자문/리경영/법률자문/개인개발/플랫폼제공) * Planning → Realization(세부과정) → Growth Start(평가/보완) → 점검
핀란드	VIGO Accelerator('09)	• 고성장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ccelerator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 창업기업의 직접 지원이 아닌 고성장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

\*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

- 2016년 이후 유럽 국가들의 스케일업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 유럽 국가별 스케일업 투자금액('16~'18) 】**

(단위: 십억달러)

구분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2016	3.3	1.8	0.7	1.8	1.7	0.8	0.5	0.4	0.8	0.3
2017	7.9	1.7	0.7	3.4	2.1	1.6	0.5	0.3	0.4	0.3
2018	11.6	10.1	4.2	4.0	3.6	2.2	0.8	0.5	0.7	0.5

\* 출처: STEPI(2020)



① 영국

- 영국은 2010년부터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정책을 전개하였음
  - ① 초기단계는 150만 파운드 이하 투자유치 스타트업 대상으로 네트워크 및 경진대회 제공, ② 중기단계는 Series A 유치 또는 연 매출 150~500만 파운드 달성기업 대상 6개월간 집중 코칭과정 제공, ③ 후기단계는 인재매칭과 민간 금융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특히, 영국은 스케일업 육성을 선도적으로 채택(중소기업 및 창업지원 정책에 포함), '16년부터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
  - \* 'Scale Up UK'를 통해 기업의 규모 확장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 Scale Up Gap을 정의하고,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영국의 Scale Up 지원분야별 대표 프로그램 】

Scale up Gap	지원분야	대표 프로그램
인력·기술(Talent and Skill Gap)	인재 확보	Career and Enterprise Company: 기업과 학교를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 1,700명의 CEO로 구성된 자문단의 멘토링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
리더십(Leadership and Capacity Gap)	리더십 강화	Entrepreneur's Forum: 직원 10명 이상의 스타트업 소유자 대상 10개월 리더십 교육 제공(스케일업 코칭, peer-to-peer 멘토링, 행동기반 학습, 워크숍 등)
판로(Market Gap)	시장 접근성 제고	Sharing in Growth: 영국 항공업계 스케일업을 위해 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지원(기업체, 국립항공우주기술프로그램, 연구소 등이 참여)
자금(Finance Gap)	투자 촉진	ELITE programme: 스타트업, 고성장기업, 전문가, 투자자간 커뮤니티 형성, 투자 유치 글로벌 플랫폼
연구시설(Infrastructure Gap)	인프라 구축	Google Campus London: 런던 소재 창업자를 위한 사무공간, 네트워크, 멘토링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

\* 출처: STEPI(2020)

- 영국은 세계 최초의 스케일업 육성 전담기관인 Scale Up Institute를 설립 (2014년), 영국 내 창업과 고성장을 촉진하여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육성을 지원
  - \* 스케일업 기업과 환경을 진단하는 조사연구 수행, 스케일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허브기능, 스케일업 대상의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역할을 수행
  - \* 지역별 스케일업 분포, 추세, 매출 및 고용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정책 수립에 반영

## ② 독일

- 독일은 연방경제에너지부가 창업정책 주관부처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
  - 시드이전(pre-seed), 시드(seed), 성장(growth)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시드이전 단계는 보조금과 창업 노하우 제공에 중심을 두고, 시드 단계는 투자자와의 접촉이나 규모 성장, 성장단계는 VC,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지원

【 독일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주요 지원 프로그램 】

단계	주요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시드 이전	EXIST	창업보조금	제품·서비스 개발, 1년 경비 및 코칭비, 창업 네트워크 등
		연구이전	우수성과의 기술·제품·공정으로의 이전 과정을 종합 지원
	창업경연대회: 디지털혁신		ICT창업기업/예비창업자 대상, 상금 및 코칭 제공
시드	마이크로메자닌 펀드		중소기업투자회사(MBG), 소규모 자본금, 소셜창업 지원
	첨단기술창업 펀드		3년 이내 혁신적 기술기업 지분/전환사채 형태 자금 지원
	독립권거래소 벤처네트워크		성장가능성 높은 신생기업 해외 투자자 연계, 자금/네트워킹
	INVEST		혁신적 신생기업 투자 유도를 위한 투자자 보조금
	유럽엔젤펀드		전문엔젤/非기관투자자들과 1:1 매칭펀드 조성, 공동투자
	ERP/EIF 모태펀드		공공·민간 연구기관 기술이전과 기술기업 후속투자 지원
	ERP벤처캐피탈기금투자		독일재건은행이 자금을 제공하는 VC펀드
	독일	생명과학	헬스케어 신생기업 미국시장 테스트
		엑셀러레이터	기술
레이터		남동아시아	아세안 국가 멘토, 투자자와 창업기업 연계
성장	코페리온(coparion)		성장단계 혁신적 신생기업
	ERP 혁신금융		ERP-디지털화 및 혁신대출(디지털/혁신), ERP-메자닌(시장지향)
	독일 메자닌 모태펀드		중소기업/고속성장신생기업 투자(민간 전문 메자닌펀드 참여)
	ERP/EIF 성장제도		ERP특별기금, 유럽투자기금(EIF)과 민간VC 공동 조성
	벤처기술성장금융		유망 비즈니스모델, 기술혁신 고성장기업 추가 대출

\* 출처: STEPI(2020)

- 성장가속화 프로그램인 German Accelerator(2012년~)는 고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생기업에 전문가 멘토링 기반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한 사업 확장을 지원

【 성장단계 스타트업을 위한 대표 금융지원 제도 】

제도	세부내용
ERP/EIF 벤처캐피탈 모태펀드	• 유럽투자기금(EIF) European Recovery Programme(ERP)의 모태펀드로, 성장기 기술회사에 투자(평균 2,000~6,000만 유로)
유럽엔젤펀드	• 80명의 엔젤투자자와 공동 투자(엔젤투자 25만~500만 유로 수준)
코페리온 공동투자기금	• 민간투자자와 동일금액으로 공동 투자(기업당 최대 1,000만 유로)
기본 보증	• 성장단계 스타트업, 은행담보 부족기업, 최대 80%(125만 유로)

\* 출처: STEPI(2020)

### ③ 프랑스

-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 2012~)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선별하여 규모 등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

- 대표적인 스케일업 프로그램인 'Pass French Tech'는 프랑스 소재 디지털 및 바이오 분야 혁신기술 보유, 업력 15년 이내 스타트업 대상으로 선정, 프랑스 및 글로벌 인지도 상승을 통해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 주관행사 참여비용, 맞춤형 성장지원 컨설팅,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

#### 【 프랑스 공공투자은행의 대표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	세부내용
혁신성 개발 보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직원 수 2,000명 이하 일반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li> <li>• 혜택: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 외국기관 및 기업과 협동프로젝트 지원, 진행단계에 맞춘 다양한 보조 지원</li> </ul>
French Tech Accel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의학기술 및 디지털 등 혁신 분야</li> <li>• 혜택: Seed capital, risk capital, fund of funds를 통한 지원</li> </ul>
Pass French Te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설립 2년 이상, 100,000유로에서 5,000만 유로의 수익 창출, 3년간 25%에서 100% 사이의 성장률을 보인 기업</li> <li>• 혜택: 행정업무 간소화, 다양한 국가지원 서비스 이용, 기업 네트워크 이용, 일류기업 커뮤니티 참여 기회 제공</li> </ul>

\* 출처: STEPI(2020)

- 프랑스는 정부 지원책으로 '라프렌치테크(La French Tech)'를 시행, 대표적인 프로그램(French Tech 120)은 성장단계에 진입한 스타트업 120개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자금조달, 보증 지원, 인재유치, 공공조달 등을 지원

- 라프렌치테크는 스타트업 대시보드를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투자자의 숫자, 투자규모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지원받는 스타트업·스케일업의 매출 현황, 투자 진행상황(funding rounds), 엑시트(exit)\* 현황 등도 함께 제공함

\* 인수합병, IPO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거나, 창업자들이 구주 매각을 통해 보유 주식을 현금화

- 더불어, 산·학·연 협력과 관련된 내용도 제공하는데, 프랑스 내 대학에 어떤 기업들이 소속되었는지를 공개하고, 스타트업·스케일업을 위한 컨설팅 기업, 공유 사무실 운영 등 공간대여 기업 현황, 액셀러레이터 현황 등을 공개하여 지원받는 스타트업·스케일업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음



○ 중국의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지원 정책 (※ 출처: 산업은행(201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 스타트업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등 창업환경 개선과 자금조달기반 조성에 주력
  - (창업환경 개선) 창업에 필요한 증서를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통합('다증합일'), 사무공간, 교육 및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지원센터(중창공간) 구축
  - (자금기반 조성) 400억위안 규모의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기금'을 조성,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거래될 수 있는 장외거래시장('신삼판') 확대 조성
  - (민간 투자) 주요 IT기업 BAT(Baidu, Alibaba, Tencent)의 직접투자('16년 전체 벤처 투자의 42% 차지)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등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 중국은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국가고신구)별로 가젤기업 육성·지원정책을 추진
  - \* 국가고신구 가젤기업 수는 2,875개('17년, 전체 기업의 2.96%)로, 전년대비 281개(10.9%) 증가
  - \* 가젤기업은 연 매출액 1,000만 위안 이상이며, 매년 2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
  - 가젤기업의 과반수(57.4%)가 10개의 국가고신구\*에 위치하며, 가젤기업 육성을 위해 대출우대·보조금 등의 금전적 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기본 정책으로 추진
  - \* 중관촌, 상하이 장장, 선전, 광저우, 쑤저우, 항저우, 우한 등후, 샤먼, 청두, 시안 순

【중국 국가고신구별 주요 스케일업 지원정책】

구분	주요 내용
중관촌	• '5성 등급제'로 가젤기업을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이자 보조금 차등 지원
선전	• 준유니콘잠재유니콘 기업 육성, 선정 기준체계, 데이터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광저우	• 가젤기업 인증 및 장려금 지급, (잠재)유니콘기업 성장 시 장려금 지급
쑤저우	• 정부조달, 연구개발 프로젝트 선정, 인재 추천, 토지·건물 양도 등 우선권 부여
항저우	• 소기업 대상 연 수익 달성 장려금, 금융기관 세금면제 및 리스크 보상 등
우한 등후	• 경영전략, 인력, 정보화 등 컨설팅 비용의 50%(年 최대 30만위안) 지원 • 5년 안에 500명의 가젤기업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50% 지원금 지급
샤먼	• 타 지역 (준)유니콘기업의 샤먼 정착금 지급, 소속 근로자의 전입 가능 • 신산업(차세대 정보기술, 반도체, 생물·신약, 신재료, 스마트제조) 우선 지원
청두	• 100억원 위안 유니콘 투자기금 설립하고, 시드기업, 가젤기업, 유니콘 기업, 업계 선도기업으로 구분한 '신경제 기업 단계적 육성 시스템'을 구축
시안	• 연구개발 장려금, 해외전시회 및 투자유치 행사 지원, 브랜드 우수기업 장려금

\*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 03 정책적 시사점

### ○ 해외 주요국의 스타트업 지원정책 특징

-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은 자본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직·간접 금융지원, 세제혜택 및 규제개선 등 창업환경 개선, 멘토링·창업교육 등 네트워킹 분야를 포함하며, 이는 국내 창업지원 정책과도 공통적인 부분임
    - (자본 접근성 확대) 민간영역(주요 IT기업, VC, CVC 등)의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 활성화, 민간투자가 부족한 국가는 공공·정책기금(EU의 EIF 등)의 조성을 통해 투자, 보증, 보조금 등의 금융지원
    - (창업환경 개선) 스타트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스타트업의 법인세 감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스톡옵션 세금감면 등 세제혜택 제공, 창업절차 간소화, 특허심사 단축, 인재 유치(비자발급 등) 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선
    - (네트워킹 활성화) 분야별 전문가·투자자·기업가 등과의 연결 및 멘토링 실시, 창업 교육과정 개설, 창업지원 플랫폼(인큐베이팅, 사무공간, 네트워킹 등) 구축 등
  - 한편, 주요국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정책의 초점을, 스타트업의 양적 확대 위주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육성 정책으로 전환·확대하는 추세임
    - 이는 고성장기업의 성과가 매출 및 고용 등에서 전체기업 평균보다 월등히 우수하며,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스케일업 정책 강화 및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보완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임
- ① (미국)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기업을 선정, 기업가정신 교육, 1:1 멘토링·경영자문, 금융접근성 제고, 네트워킹 강화 등의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 ② (유럽) 인재 확보, 리더십 강화, 판로, 자금, 인프라 구축, 혁신성 개발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스케일업 지원 정책을 시행
  - ③ (중국)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별로 가젤기업 육성·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출우대·보증 등의 금전적 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기본 정책으로 추진

## ○ 국내 정책지원 강화 필요 분야

- 국내 창업지원 정책을 주관하는 중기부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을 살펴본 결과,
  - 금융지원 성격의 정책자금 용자와 기술개발 지원 비중이 컸으며, 창업 성장 단계별 패키지 지원,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민간투자 연계 지원, 특화산업 창업 활성화, 청년창업·청년인재 양성, 글로벌 창업 순서로 비중이 높았으며, 사회적 약자, 인식개선까지 전 부문에 걸쳐 다수의 정책이 포진하고 있음
  - 다만, 해외 주요국 대비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 정책은 부족한 수준이며,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유망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제조분야 창업 촉진을 위한 특화정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국내 창업정책지원방식 및 보완방향 】

부족분야 (GAP)	현재 정책현황	향후 지원방향
스케일업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케일업 지원 부족 *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유일</li> <li>• 업력 위주로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함에 따라 개별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체계적 정책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성장기업 육성 정책 강화</li> <li>- 국내 고성장기업 비중 OECD 하위권으로, 그 비중도 수년간 감소 추세</li> <li>• 매출, 고용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 스케일업 정책지원</li> </ul>
지역기반 스타트업 육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산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보육사업 위주</li> <li>•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스케일업 위한 맞춤형 정책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화 산업부문 창업활동 촉진</li> <li>• 유망 스타트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필요</li> </ul>
제조업분야 창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신생률 지속 감소세</li> <li>• 제조업 창업 특화정책도 부족 * 소재·부품·장비100 스타트업,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이 유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분야 혁신창업 촉진 정책 필요</li> <li>• 주력산업 구조혁신 및 경쟁력 강화</li> </ul>
지원방식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주요국 대비 스케일업 지원 부족</li> <li>• 스케일업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 방식 고도화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조달) 용자 위주 → 투융자 복합</li> <li>• (판로) 거래선 발굴 → 글로벌 창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li> <li>• (성장단계별 지원) - 기능별·분절적 → 맞춤형 원프로세스</li> </ul>

## III 정책지원기관 역할 검토

### 01 창업 지원체계 조사

#### ○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현황

- '22년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포함된 지원기관은 중앙부처 14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63개임
- 전체 창업지원 예산의 97%를 차지하는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은 총 37개의 주관기관에서 전담 수행하고 있음

【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

(단위: 개, 억원, %)

주관기관명	사업 수	지원예산		융자R&D 제외 지원예산		소관 부처*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5.0	20,980	59.0	980	9.1	중기부
창업진흥원	26	26.0	7,239	20.3	7,239	67.3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1.0	4,436	12.5	-	0.0	중기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	1.0	319	0.9	319	3.0	고용부
한국연구재단	3	3.0	242	0.7	242	2.3	교육부
한국콘텐츠진흥원	1	1.0	214	0.6	214	2.0	문체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1.0	198	0.6	198	1.8	중기부
산림조합	1	1.0	180	0.5	-	0.0	산림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2.0	157	0.4	157	1.5	환경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	4.0	150	0.4	150	1.4	농림부
한국관광공사	2	2.0	139	0.4	139	1.3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3	3.0	138	0.4	138	1.3	문체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	2.0	134	0.4	-	0.0	과기부
한국발명진흥회	3	3.0	126	0.4	126	1.2	특허청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1	1.0	123	0.3	123	1.1	과기부
한국창업보육협회	1	1.0	122	0.3	122	1.1	중기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7	7.0	100	0.3	100	0.9	문체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4.0	99	0.3	99	0.9	과기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	6.0	75	0.2	75	0.7	중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	3.0	68	0.2	28	0.3	해수부
창업투자지원센터	1	1.0	53	0.1	53	0.5	해수부

주관기관명	사업 수	비중	지원예산		용자R&D 제외 지원예산		소관 부처*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	2.0	46	0.1	46	0.4	과기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3.0	46	0.1	19	0.2	복지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2.0	43	0.1	43	0.4	농림부
농진청	1	1.0	36	0.1	36	0.3	농림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	1.0	36	0.1	36	0.3	문화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	1.0	20	0.1	20	0.2	과기부
KAIST, POSTECH	1	1.0	19	0.1	19	0.2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	1.0	17	0.0	17	0.2	특허청
(사)한국여성벤처협회	2	2.0	8	0.0	8	0.1	중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	1.0	6	0.0	6	0.1	농림부
(사)벤처기업협회	1	1.0	3	0.0	3	0.0	농림부
한국수자원공사	1	1.0	3	0.0	3	0.0	환경부
산림청	1	1.0	2	0.0	2	0.0	산림청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	1.0	2	0.0	2	0.0	중기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	3.0	1	0.0	1	0.0	국토부
<b>총 합계</b>	<b>100</b>	<b>100.0</b>	<b>35,578</b>	<b>100.0</b>	<b>10,761</b>	<b>100.0</b>	

\* 소관부처는 사업소관 기준임(다수 부처의 사업을 주관할 경우, 예산규모가 큰 사업의 소관부처)

- 지원예산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은 정책자금 용자사업을 주관하는 중진공(59%)과, 가장 많은 수의 사업을 주관하는 창업진흥원(20%),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3%)이 있음
- 주관하는 사업 수는 창진원이 26개로 전체(100개)의 1/4 이상을 차지하며, 중진공(5개) 외에도 4~7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몇 개 기관\*이 있으나, 대부분 특화된 분야에 한정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규모도 크지 않은 편임
- \* 기관(지원분야, 예산비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식품, 0.4%), 예술경영지원센터(예술기업, 0.3%),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SW, 0.3%),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애인기업, 0.2%)
- 단위사업 예산규모가 큰 용자와 기술개발 사업을 제외하면, 창진원의 예산 비중이 67%로 절대적이며, 뒤를 이어 중진공이 9%를 점유, 그 외 2~3% 비중의 기관들\*이 있으나 특화된 분야에 한정된 사업을 수행함
- \* 기관(지원분야, 사업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 1개), 한국연구재단(대학 창업, 3개),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콘텐츠, 1개), 소상공인진흥원(소상공인 창업교육, 1개)

○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역할 비교** (※ 참고: 중진공 7기 경영혁신전담반(2017.08) 외)

- 총 37개의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중 비중이 있는 기관은 소수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창업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은 창진원과 중진공 정도로 압축됨에 따라 2개 기관을 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중기부 소관 주요 창업지원기관 】**

구분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설립근거 및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li> <li>- 창업진흥원 설립('08.12)</li> <li>- 기타 공공기관('11) → 준정부기관('19)</li> <li>- 창업법상 설립근거 마련('19.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li> <li>- 진흥법 제정(1978.12), 공단 설립(1979.01)</li> <li>- 창업보육센터(1992), 창업지원자금(1995), 한국벤처투자 설립('00),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명칭 변경('09), 창업사관학교('11), 청년창업센터('12)</li> </ul>
조직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본부 22실/6팀, 정원 245명</li> <li>- 창업관련 본부조직: 3본부 15실(157명)</li> <li>* 창업촉진본부, 창업성장본부, 창업기반본부</li> <li>- 현장 집행조직: 없음(민간기관 재위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본부 27실처/6연수원/청년창업사관학교/33지역본지부/해외센터, 정원 1,467명</li> <li>- 창업관련 본부조직: 1처(23명, 일자리본부)</li> <li>- 현장 집행조직: 33개 지역본지부 외</li> </ul>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성장 지원</li> <li>- 창업정책, 실태조사, 창업자지원, 창업교육, 창업저변 확대, 창업기반 조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지원</li> <li>- 제조신산업 혁신성장, 수출글로벌화,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혁신, 사업구조 전환, 디지털-ESG 확산</li> </ul>
창업사업 추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창업진흥원)</li> <li>- 제4항(창업정책 연구, 창업자 자금(융자제외)/인력/판로/입지/정보, 창업교육모델, 창업실태조사, 국제교류, 창업기업 해외진출, 외국인 창업, 예비창업자 발굴지원, 재창업-청년창업자 교육 사업화, 청소년예비창업자 교육, 대학연구기관 창업촉진, 창업 전문인력 육성, 창업저변 확대, 창업문화 조성, 창업기반 조성, 위탁사업)</li> <l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li> <li>- 제5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제2항 제6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li> <li>-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위하여 ...설치한다.</li> <li>-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중진공이 운용관리</li> <li>-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제1호(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지원), 제5호(창업지원을 위하여 중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li> <li>- 제74조(사업) 제10호(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li> <l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li> <li>- 제5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제1항 제3호</li> </ul>
주요 사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재위탁(대학, 협회 등)</li> <li>- 주관기관 선발, 주관기관 위탁을 통한 사업화 지원(교육/코칭/네트워킹), 주관기관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진공 직접 수행(책임 지원)</li> <li>- 청년창업사관학교 직접 운영 및 민간협력 운영, 정책자금(청년전용/창업/성장공유) 등 연계 지원</li> </ul>
특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정책에 특화된 전담기관 위상, 중기부 정책 확대(일반회계) 수혜</li> <li>- 창업정책 기획운용을 위한 조직인력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집행조직, 기업진단·평가 노하우 및 다양한 정책역량(연계지원 수단) 보유</li> <li>- 정책자금(투융자), 수출글로벌화, 인력양성 등</li> </ul>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지원 역량 및 현장조직 부재</li> <li>- 재위탁 방식으로 사업시기 지연, 수행기관별 특성에 따른 성과 차이, 일관성 확보 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영역이 기금사업 위주로 제한적</li> <li>- 중기부 사업위탁 미진, 정책기획 역량 부족, 내부 창업정책 부문 조직인력 확대에 한계</li> </ul>

\* 출처: 기관별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 ALIO 공시자료, 중진공 창업지원처 제공자료 등



- 창진원은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중기부 소관 창업지원사업(일반회계)이 창진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 \* 창진원 창업사업 예산(억원): ('12) 1,193 → ('17) 2,609 → ('22) 7,239 ('12년의 6.1배)
  - '08년 설립 이후 민간위탁 방식(대학, 협단체) 창업기반 조성 → 사업화·도약 → 재창업 → 글로벌창업 등 창업정책 쏠 분야에서 사업영역 확대 中
  - 창업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기부의 위탁사업 확대와 함께 창진원의 조직과 인력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
  - \* ('08) 설립(민법상 사단법인) → ('17) 정원 82명 → ('19) 법정기관화 → ('22) 정원 245명
  - 창진원은 주로 타 기관 재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직접 수행을 위한 역량(현장 수요발굴, 기업평가, 연계지원, 사후관리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중진공은 1979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며, 중소기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전 분야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음
  - 제조 및 신산업분야 혁신성장, 수출 및 글로벌화,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혁신, 디지털·ESG 및 사업구조 전환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수행
  - 특히, 국내외 현장 지원조직 인프라를 통한 유망기업 발굴 기능, 기업평가 및 진단 역량을 지속 축적해왔으며, 보유 정책수단을 활용한 연계지원이 가능
  - 한편,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관리 주체로서, 창업사업 추진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창업사관학교 운영과, 기금을 통한 모태펀드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국한되고 있음
  - \* 정부의 창업정책 확대와 함께 창진원이 지속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해온 것과는 차이가 있음
- 한편, 창진원이 창업정책 특화기관을 표방하며 사업과 조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반면, 중진공은 그간의 기금운용 규모와 창업지원 역할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은 크게 약화되어 있는 실정임
  - (창업사관학교) 사업 차별성 약화, 운영 노하우 등 DB 축적 및 활용도 미흡, 민간 네트워크·협업 및 투자유치 부족, 대내 지원부문간 시너지 창출 부족

- \* (공공대비) 창업선도대학 등 타 창업기관의 기술창업 지원 확대, 인프라 증설, 지원금 증액 및 전담멘토제 도입 등으로 사업 차별성 약화
- \* (민간대비) 전담멘토 인력 운영상 신사업·신기술 분야 전문가의 지속적 영입에 한계, 민간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및 협업 부족
- (창업자금) 연간 2조원 규모에 달하는 창업 용자금 집행에도 불구하고, 창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 및 전문성은 약화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전문위원 역할의 한계(전문분야 실질적 멘토링 부족), 업력 및 한도의 제약으로 스케일업을 위한 지속적 성장 지원에 한계, 성공사례 배출 애로
  - \* 재창업의 경우에도 혁신형 보다 생계형 비중이 높고, 용자 위주의 지원으로 성공률 낮음
  - \* 용자 방식의 자금 지원은 기금 손실 Risk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혁신창업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어려운 측면
- (글로벌창업) 글로벌창업사관학교(예산 108.6억원)의 경우에도 ‘해외진출 준비’ 단계로 포지셔닝 및 국내 교육·보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 정체성 모호, 중진공 해외 인프라 활용·연계 부족
  - \* 후속 단계인 ‘해외시장 진출(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해외시장 안착(K-스타트업센터, 해외실증, 투자유치)’ 해당 사업은 모두 창진원 주관사업으로 수행 중

**【 창업기업 글로벌화 지원 단계별 프로그램 】**



\* 2022년 창업기업 글로벌화 지원 기본계획(중기부, 2022.03)

- (신규사업)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이어드림, 27억원)’은 개발인력 양성 및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취업교육 및 채용연계 사업을 '22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실질적인 채용성과 달성이 중요

### ○ 중진공 창업사업 분야 SWOT 분석

- 중진공의 창업사업 추진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분석을 통해 향후 창업정책 분야에서 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 방향 모색

#### 【중진공 창업사업 분야 SWOT 분석】

<b>강점 (Strength)</b>	<b>약점 (Weaknes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판로·인력 등 다양한 정책수단 보유</li> <li>• 국내·외 현장 지원거점 및 기업진단 노하우</li> <li>• 제조/청년/재창업 분야 선도적 입지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자금 융자 중심의 창업지원 시책</li> <li>• 창업사업 추진조직 및 기획역량 취약</li> <li>• 창업지원 인력 전문성 부족(신산업 멘토링 등)</li> </ul>
<b>기회 (Opportunity)</b>	<b>위협 (Threa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가속화</li> <li>• 경기침체 → 주력산업 고도화 정책 필요성</li> <li>• 창업기업의 Scale-up 정책방향 공감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정부의 민간주도 혁신성장 정책방향</li> <li>• 제조창업 위주의 정책을 신산업 분야로 전환</li> <li>• 창진원의 창업정책 전문기관화(법적기반/규모)</li> </ul>
<b>SO 전략</b>	<b>WO 전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육성정책</li> <li>• 해외거점 기반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혁신 창업기업 발굴·육성 협업체계 구축</li> <li>• 신산업 창업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사례 발굴</li> </ul>
<b>ST 전략</b>	<b>WT 전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적 창업정책지원기관으로서 위상 제고</li> <li>• 창업지원 기관 간 업무분담·협업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금의 투융자 전환 및 민간투자 연계</li> <li>• 민간 전문가 네트워킹, DB활용 플랫폼 구축</li> </ul>

-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진단 역량, 맞춤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자금·판로·인력 등) 및 전국 현장조직(각 지역의 기업 지원 접점)을 보유하고 있음
  - (진단역량) 기업 경쟁력 진단을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맞춤 연계
    - \* 40년 이상 중소기업정책지원과정에서 기업 진단·평가 시스템 기반으로 20만개사 108만건의 기업데이터 및 진단 노하우 축적, 기업 연성정보 및 현장의 애로 수집이 가능한 채널 보유
  - (정책수단) 중소기업의 창업, 성장, 구조혁신, 재도전 등 성장단계별 애로에 대응 가능한 자금, 판로, 인력, 정보, 기술 등 종합 지원수단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정책 연계 및 일괄 지원이 가능

- (현장접점) 전국 33개 지역본·지부(19개 청년창업센터), 5개 연수원,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본교 및 17개 지역), 27개 해외거점 등 국내외 현장 지원기반 구축
  - \* 특히, 장기간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역별 거점을 통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예: 지자체 협력사업(자금수출 등), 지역 주력산업 성장촉진 프로젝트 등)
- (규제혁신 창구) 현장 최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이 겪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또는 애로를 상시 수집, 관련 채널을 통해 소관 부처에 전달함으로써 규제개선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창구 역할을 담당
  - \* 중소기업옴부즈만 연계, 「S.O.S. Talk(지역 中企 규제애로 해결 현장 간담회)」의 정기적 개최 등
- 이러한 증진공의 보유 역량과 강점을 기반으로 창업 생태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창업지원 분야 증진공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신규 정책 마련을 위한 방향성 제시
  - 국내 현장 지원거점 및 해외거점 인프라, 기업진단 노하우 및 종합 정책연계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특화 유망 스타트업의 육성 및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특히,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에 있어 지자체,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화된 유망 스타트업의 육성 기능을 강화하고 증진공 내부 각 지원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 시너지 제고
  - 창업자금 지원 방식은 용자 위주에서 투융자 복합 방식으로 전환하여 혁신 창업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민간 벤처투자 연계 및 증진공의 다양한 정책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고성장기업으로 육성
- 중기부에서 창업분야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에서, 산하기관 간 창업지원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소관 창업정책 전반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
  - 산하기관의 역량과 강점을 기반으로 창업지원 분야 중복영역 해소를 통해 경쟁관계가 아닌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관 간 정책 시너지를 높이고 개별사업의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 02 | 지원기관 역할 강화 방안 검토

### 1 창업정책 협업 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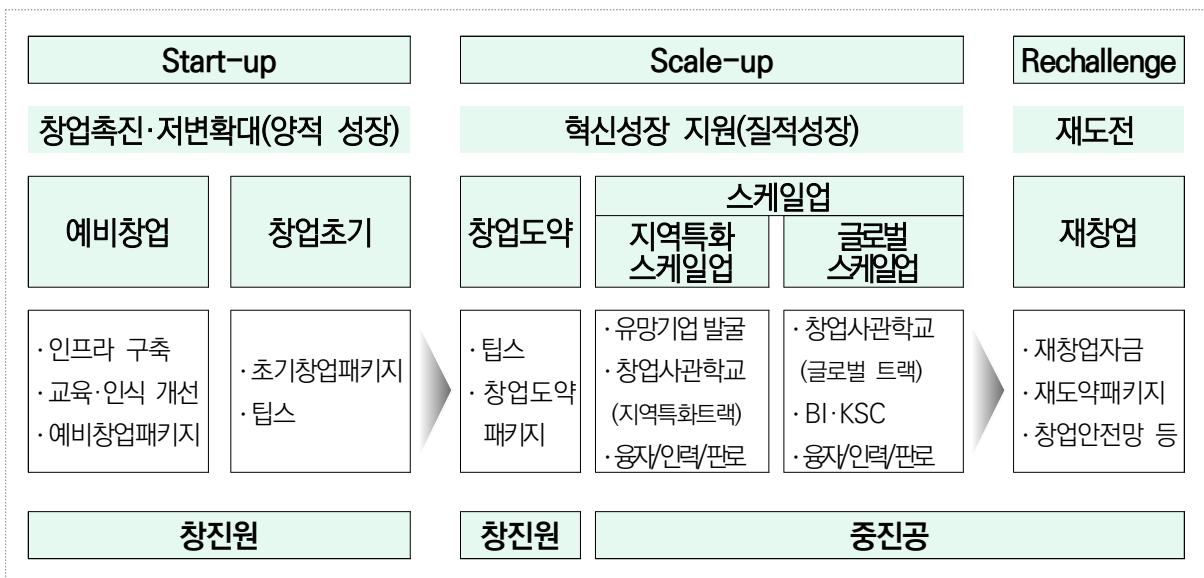
#### ○ 중기부 산하 창업지원기관 협업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 중기부 소관의 신규 창업정책은 대부분 창진원에 우선 위탁되며, 직접 집행 기능이 부재한 창진원은 이를 민간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방식은 일련의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함
    - 민간 주관기관은 시장 수요가 풍부하고 성과를 내기 용이한 부문에 자원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역·제조·재창업 등 민간소외 및 취약부문에 대한 정책지원 필요성으로 인해 공공주도의 직접집행 역할도 여전히 중요함
    - 한편,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육성 정책에 있어서도, 현장 접점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발굴 기능과, 기업진단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수단의 일괄·신속 연계를 통한 종합 육성방식이 주효하므로, 집행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
    - 공공주도 정책이 효과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중진공과 같은 현장 집행조직·인력 및 기업진단·평가 노하우, 다양한 정책지원수단을 가진 공공기관의 직접집행 역량을 바탕으로 정책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중기부 소관 창업정책의 확대와 함께 창진원의 사업규모와 조직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재위탁 기관에 대한 사업관리 기능에 머물러 있으며, 단기간 내에 직접집행 역량을 축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창진원은 창업 촉진을 위한 저변확대 및 분위기 조성 등의 정책 영역에서 민간과의 협력 추진에 주력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지역 창업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 유망기업의 스케일업 육성 등의 정책은 직접 집행역량을 갖춘 중진공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 특히, 중진공은 국내 각 지역 현장 거점 및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해외 BI 운영 등 kotra와의 협업관계 구축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정책자금 투융자 집행 기능을 통해 민간 VC와의 협업 및 자회사 한국벤처투자와의 원활한 협업관계 구축 가능



- 중기부 입장에서도 창업정책의 패권을 가진 부처로서, 특정 산하기관에 정책을 전담시키기 보다는 기관별 강점과 고유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집행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대표적인 2대 창업지원기관으로서, 창진원의 창업생태계 구축과 중진공의 中企 혁신성장 지원 기능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창진원은 창업 촉진과 초기 사업화 등 창업 저변을 확대를 담당하고, 중진공은 지역 거점 기반으로 지역특화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국내외 다양한 정책 수단 연계를 통해 스케일업/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

**【 창업단계별 지원 체계】**



\* 출처: 중진공 7기 경영혁신전담반(2017.08) 참고하여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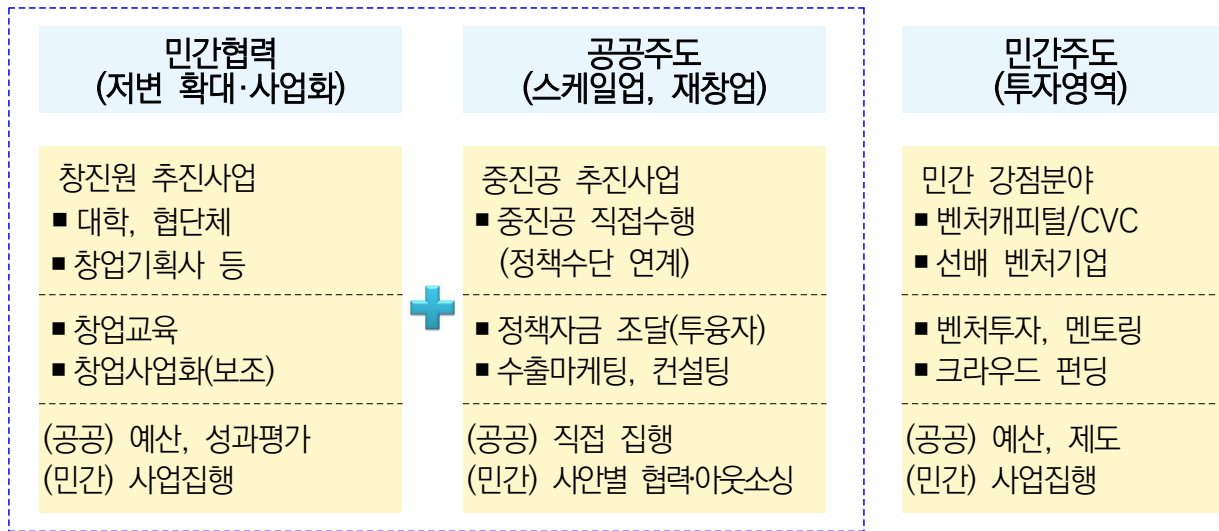
- 창업저변 확대·초기사업화, 스케일업, 투자 등 정책지원 부문에 따라 민간협력, 공공주도, 민간주도 등 공공과 민간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 (창업저변·초기사업화) 공공부문에서 사업기획 후 대학,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주관기관에서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사업 집행, 공공부문에서 사업 성과 평가
  - (스케일업·지역·재창업) 유망기업 발굴 및 다양한 정책 수단 집중 지원이 필요한 스케일업 영역과 지역·제조·재창업 등 취약부문은 공공에서 직접 집행 하되, 민간이 우수한 전문분야인 멘토링, 투자, 네트워크는 민간과 협력 또는 아웃소싱 추진



- (민간주도) 벤처캐피탈/CVC, 투자 영역은 민간의 주도적 참여 유인\*을 확대하여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강화

\* 세컨더리 펀드 확대, 인수합병 등 규제 개선, 복수의결권 도입 등

【 창업 지원부문별 정책집행 방식 】



〈 참고 1.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벤처 지원기관 현황 〉

○ 현행 각 기관별 특성과 사업영역에 부합하는 창업-벤처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구분	중진공	기정원	창진원	한국벤처투자	기보	소진공
지원기능	창업사관학교, 창업자금 융자	창업성장R&D, 재도전R&D	창업저변확대, 창업사업화 등	창업펀드, 엔젤투자매칭	창업벤처 보증	소상공인 창업지원
강점분야	정책자금 융자, 현장 집행조직, 다양한 연계지원	R&D	보조사업, 대학·민간협력, 창업 특화기관	모태펀드/투자	기술평가 보증	교육/자금연계
한계점	기금사업 위주 (위탁사업 한계)	제한적 기능	사업관리 위주 (실집행은 재위탁)	제한적 기능	제한적 기능	소상공인 대상 한정
비고	제조분야 특화	-	사업영역 확대 중*	-	기술금융 주력**	-

\* 혁신창업(BIG3)-스케일업(아기유니콘) 지원 및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글로벌(K스타트업센터) 거점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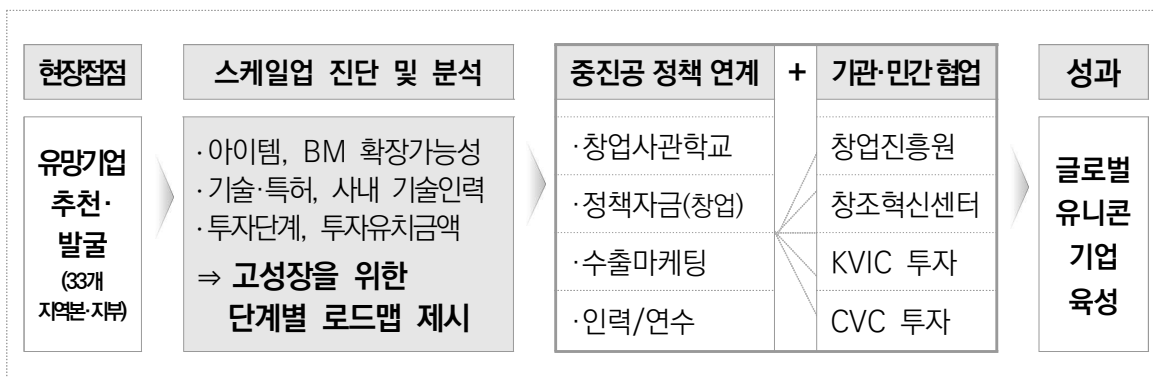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 대상의 '기술금융 및 혁신지원' 기관으로 포지셔닝, 기술평가 전담조직 확대 등

## 2 중진공 고유 지원영역 확대 방향 ▶▶

### ○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육성 (중진공 보유 정책수단 종합 + 타 기관 연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업지원 체계 내에서 중진공이 추진하기에 적합한 역할 분야는 **창업기업의 도약과 스케일업 육성 분야**로,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 및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
  - 창업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하고 단기간 내 고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적합한 유망한 아이템과 사업모델, 경영자의 역량을 기반으로, 자금 조달, 인력 영입, BM 혁신, 판로의 확장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필요한 전략과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는 전용 진단모델\*을 기반으로 필요한 정책수단을 중진공이 직접 연계하는 창업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 스타트업의 스케일업화 진단모델 개발(아이템, BM, 경영기반 등 진단, 자금조달/인력/판로 확장 등 고성장을 위한 로드맵 제시), 중진공 보유 정책수단(자금, 인력, 판로 등) 직접 연계 및 후속 민간투자/CVC 연계, 서울 지역에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전문 사관학교' 창설 검토
- 중진공 지역본부, 지역 창업사관학교 및 청년창업센터 등 현장거점 기반으로 유망 창업기업 발굴 기능 및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공공집행 부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유니콘기업 육성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임
- \* 초기 사업화 지원을 담당하는 창진원과의 협업, 한국벤처투자와의 협업 등을 통해 유망기업 발굴 및 후속투자 지원 등을 연계함으로써 창업정책 전반의 성과제고를 도모

#### 【스케일업 진단모델 기반 연계 지원 체계】



## ○ 지역특화 유망 창업기업의 육성·발굴 (취약부문, 공공부문 적합)

- 과거 한국 경제의 중요 성장동력이었던 주력 제조업의 침체는 이를 주력산업으로 영위하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국가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어 지역 주력산업 혁신 및 고도화 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 지역 내 혁신창업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산업특성에 기반하는 창업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현장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기능이 중요
    - \* 민간의 벤처투자는 수도권(서울) 신산업 위주로 집중,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에는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및 특화산업 분야 혁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 창업사관학교를 특성화 하고, 사관학교를 통해 배출한 지역 유망 창업기업은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패키지 트랙으로 연계
  - 특히, 각 지역별로 구축되어 운영 중인 지역 협업 거버넌스\*와 연계할 경우 지역 주력·특화산업 분야 혁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관간 협업 및 연계 지원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지자체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주력산업 혁신성장 프로젝트 등의 일환으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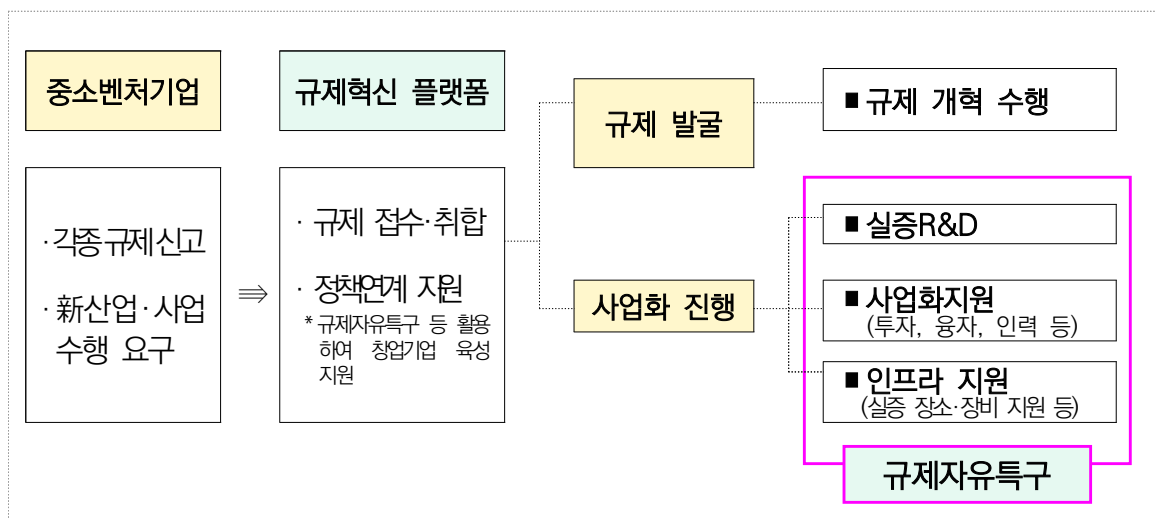
## ○ 해외거점을 활용한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 중진공은 국내 현장 접점을 활용한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 발굴과 해외 거점을 활용한 현지진출 지원이 동시에 가능한 기관\*으로, 유망기업 대상 국내 정책 수단(자금·인력, 판로)과 해외거점의 현지화 지원사업,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연계지원하여 글로벌 스케일업 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지원 가능
  - \* 창진원은 해외 거점 부재, 코트라는 유망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국내 기반 미비
- 글로벌 스케일업하기 위해서는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아이템과 확장가능한 BM 보유가 중요하며, 중진공은 지역본부, 지역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 혁신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기업 발굴 가능
- 이러한 잠재력을 갖춘 창업기업 대상 국내 창업교육·멘토링·사업화와 해외 현지 파견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는 체계적 스케일업 지원시스템 구축

### ○ 규제혁신 플랫폼 연계: 현장 중심의 창업기업 규제애로 발굴 및 혁신

- 창업기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스케일업 및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와 규제 발굴 및 해소 역할 수행 필요
  -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활동에 제약을 주는 창업 장벽에 대한 규제 해소 분야는 창진원에서 일부 수행 중이나,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나 제약 요건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역할은 그간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중진공은 창업지원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장 최일선에서 직접 스케일업 유망 기업이 느끼는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특히 자회사인 한국벤처투자와의 협력을 통해 예비 유니콘기업 등 현장의 피드백이 정책 당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 중진공은 현장 접점인 33개 지역본·지부에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상시 발굴 추진 중
- 발굴된 규제가 실제 해소되기 전까지는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규제제약 없이 실증 및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창업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할 필요가 있음

【규제혁신 플랫폼 운영 체계】



## IV 창업사관학교 발전방향 검토

### 01 창업사관학교 현황 분석

#### 1 창업사관학교 개요 및 추진성과

##### ○ 창업사관학교 사업 개요

- (추진목적) 창업 3년 이내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입주공간 제공, 교육·지도(코칭), 사업화자금 지원 등 창업 쏠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률 제고
  - \* 창업준비(교육 및 사업계획 검증) → 창업실행(제품 개발 및 시제작) → 성장단계(유자·투자, 마케팅) → 안정화단계(사후(성과)관리, 네트워킹 형성 등)
- (추진경과) '11.3월 설립(경기 안산)
  - ('12.3) 청년창업사관학교 지방 확대 (광주, 경북, 경남, 충남('14.3))
  - ('18.9) 청년창업사관학교 전국 확대(총 17개소) 및 민간운영사 협업방식\* 도입
    - \* 민간운영사가 창업자 선발을 제외한 교육·코칭, 평가 등을 담당
  - ('21.4)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 (총 18개소)
  - ('22.2)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시범 도입(대전)
    - \* 민간운영사가 창업자 선발부터 교육·코칭, 투자유치 과정까지 담당
-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 업종(혁신 제조 융·복합 업종)
- (선발인원 및 지원규모) 915명, 845억원 ('22년, 수도권:비수도권 지원비중 4:6)
  - '18년부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전국 확대 및 선발인원과 예산규모가 2배 증가

단위 : 억원, 명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선발인원	241	229	301	307	278	324	500	1,000	1,000	1,035	1,065	915
예산규모	180	150	254	260	260	260	500	1,022	922	929	968	845

- (지원내용) 창업공간, 사업화 자금, 교육·코칭, 시제품제작, 연계지원 등 창업  
 쉐 단계를 패키지 방식 일괄 지원
  - 창업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 지원
    - \* 사무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 공간 (공동, 개별) 제공
    - \* 제품제작 및 관련장비 : 3D 프린터, RP 머신, 가공기 등 지원
  - 교육·코칭 : 창업 교육, 사업화 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단계별 진도 관리
  - 기술지원 : 3차원 측정 및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등
  - 정부 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기술정보활동, 지재권 출원 및 마케팅 지원
  - 판로개척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부스비·통역비·운송비)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지원
  - 연계지원 : 졸업 후 5년간(창업 7년 미만) 후속연계 및 정책사업 연계 지원
    - \* (후속연계) 제품개선, 홍보, 마케팅 등 졸업 후 후속연계지원
    - \* (정책사업연계) 정책자금, 수출지원,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 투자유치연계 등
- (운영방식) 직접 운영(5), 민간협업형(12), 민간주도형(1)으로 운영
  - (직접 운영) 본교(안산·구리), 충남(천안), 광주, 경북(경산), 경남(창원)
  - (민간협업) 서울, 인천, 경기북부, 강원, 충북, 세종, 전북, 전남, 제주, 대구, 부산, 울산
  - (민간주도) 대전

구분	내용
직접 운영(5)	• 입교생 선발, 교육, 코칭, 평가 연계지원 모두 중진공에서 직접 수행
민간협업형(12)	• 입교생 선발, 연계지원 등을 제외한 교육, 코칭, 평가 등을 민간 운영사 수행 - (민간운영사) 입교생 교육, 코칭, 평가 - (중진공) 입교생 선발, 사업비, 연계지원 등
민간주도형(1)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font-weight: bold;">신규</div>	• 입교생 선발, 교육, 코칭, 평가, 후속투자까지 모두 민간 운영사 수행 - (민간운영사) <b>입교생 선발</b> , 교육, 코칭, 평가, <b>후속투자</b> - (중진공) 사업비 지원



## ○ 창업사관학교 추진성과

- (경영성과) '11년 설립 후 청년 CEO 5,842명 양성, 일자리 창출 17,308명, 매출액 77,991억원, 지식재산권 17,747건('11~'21)
- ('21년 성과) 청년 CEO 양성(1,044명), 일자리 창출(3,549명, 1인당 3.4명), 매출액(2,658억원, 1인당 2.5억원), 투자유치(228억원, 1건당 2.5억원)
- (생존율) 청년창업사관학교 입주기업의 생존율은 71.6%('21.6)로 일반 창업기업(32.1%) 및 타 창업사업(57.1%) 지원기업 대비 매우 높은 편
  - \* 자료 : 생존율(5년 기준), 일반기업('21년 통계청), 창업지원사업('20년 창업진흥원)
- (성공사례) 토스(국내 최초 핀테크 유니콘), 직방(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기업가치 3조),뱅크샐러드(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예비유니콘), 글루가(신소재 젤 네일, 프리IPO) 등

## 2 창업사관학교 SWOT 및 내부역량 분석 ▶▶

### ○ 창업사관학교 SWOT 분석

- 창업사관학교 강점분야, 약점분야, 기회요인, 위협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관학교의 개선 전략을 수립

#### 【 창업사관학교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판로·인력 등 다양한 정책수단 보유</li> <li>• 전국 33개 지역현장 거점 보유</li> <li>• 해외 거점 보유(17개국 28개 거점)</li> <li>• 창업지원(12년)노하우·우수 성공사례 축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DB 등 데이터 축적 취약</li> <li>• 투자유치, 네트워크 기능 부족</li> <li>• 창업지원을 위한 대내조직간 시너지 창출 부족</li> <li>• 민간기관과 협업 부족</li> </ul>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창업·벤처투자 역대 최고, 제2 벤처붐</li> <li>• 정부 창업 예산 확대('21)1.4조→('22)1.6조*</li> <li>• 스케일업 지원 정책 확대</li> <li>• 창업, 스타트업 취업에 대한 인식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관련 지원기관 경쟁 심화</li> <li>• 수도권·비수도권 창업 불균형 심화</li> <li>• 정부 주도, 규제에 의해 기업 성장 지연</li> <li>• 스케일업 지원 부족</li> </ul>

\* 기초지자체와 융자사업 제외

<b>SO 전략</b>	<b>WO 전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과정 운영 확대</li> <li>· 해외 창업인프라 활용, 글로벌 과정 등 사업 확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전문분야 민간협업 확대</li> <li>· 기존 지원 DB를 활용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li> </ul>
<b>ST 전략</b>	<b>WT 전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거점을 활용, 비수도권 창업 지원 확대</li> <li>· 창업지원 노하우를 활용한 스케일업 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협업 강화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 강화</li> <li>· 대내 부서와 창업지원 협업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li> </ul>

### ○ 창업사관학교 핵심역량 분석

- 기관 창업 지원 관련 내부역량을 VRIO(Value, Rarity, Inimitability, Organization) 프레임워크에 따라 분석 후 핵심역량 도출

구분	Value (경제가치)	Rarity (희소성)	Inimitability (모방 불가능성)	Organization (조직)	경쟁력 현황
창업 인프라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장비 등 인프라 (O)	메이크업 스페이스 등 타기관 지원 가능(X)	단순 인프라는 타기관에서 모방 용이 (X)	창업인프라 활용 조직 보유 (O)	경쟁자와 차이 없음
창업지원 노하우	지난 12년간 축적된 지원 노하우 (O)	창업지원 선발주자로 노하우 보유 (O)	장기간 축적된 지원 노하우는 모방이 어려움 (O)	노하우 활용 가능한 조직 보유 (O)	지속적 경쟁우위 (핵심역량)
국내외 지원네트 워크	네트워크 활용, 정책수단 연계지원 가능 (O)	국내외 거점을 보유한 유일한 기관 (O)	국내외 지원조직은 타 기관에서 단기간 구축 불가능 (O)	네트워크 활용 가능한 조직 보유 (O)	지속적 경쟁우위 (핵심역량)

- 중진공은 전국 33개 지역본·지부, 지역 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센터 등 지역 거점을 통한 유망기업 발굴과 지역 혁신기관과 협력사업 추진이 용이
  - 이러한 강점을 활용, 주력산업, 대학, 연구소, 기업활동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별 특성화 트랙을 운영하여 사업 차별성 확보
    - \* (지역) 지역 주력산업에 기반한 특성화 트랙 / (수도권) 스케일업 트랙으로 운영
- 또한, 국내외 직접 집행 조직을 보유한 기관으로써, 국내 창업지원 교육·멘토링과 해외거점(17개국 28개)의 현지화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글로벌 특화과정 운영
  - \* (글로벌특화과정) 국내 창업멘토링 + 해외 현지 지원 프로그램

## ○ 창업사관학교 유사사업 비교

- 청년창업사관학교와 타 기관 유사사업인 TIPS 비교분석 자료를 소개함
  -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자금, 교육, 코칭, 공간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졸업 후 5년간 국내외 거점을 활용한 용자, 판로, 투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사가 창업자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TIPS 대비 민간협업과 투자유치 연계 등을 위한 네트워크 부족

⇒ 조직 내 벤처융합금융처, 해외거점 등과 협업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 보강 필요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5년간 연계지원 (창업 7년 미만)

### 【 청년창업사관학교와 틱스 비교 】

구분	청년창업사관학교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틱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업력 3년 미만	틱스 R&D 선정*, 업력 7년 이내
지원내용	one-stop 패키지 지원 (자금, 교육, 코칭, 공간, 판로 등)	시제품 제작, 해외진출마케팅, 후속사업화 자금(포스트틱스)
예산(억원)	845	778
선발인원	915명	525개사
지원방식	직영 또는 운영사 위탁	운영사 위탁
운영주체*	직영(5), 민간협업형(12), 민간주도형(1)**	민간운영사(82)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 마케팅, 인력 등 다양한 정책 연계</li> <li>• 해외거점을 활용한 정책지원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망한 기술창업기업 선별 가능</li> <li>• 우수한 운영사 네트워크</li> </ul>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유치, 네트워크 기능 부족</li> <li>• 운영사 전문성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사 수도권 집중*** (72% 이상)</li> <li>• 벤처투자 증가로 틱스 매력도 저하</li> <li>• 경영지원, 멘토링 서비스 부족</li> </ul>

\* 틱스 운영사 투자 및 추천받은 업력 7년 미만 업체 대상 R&D 최대 5억원 지원

\*\* (민간주도형) 선발, 교육, 코칭, 평가, 후속투자 담당 / (민간협업형) 교육, 코칭, 평가 담당

\*\*\* TIPS 운영사 65개사 중 수도권 47개(72%), 비수도권 18개(28%), BI 소재지는 수도권 36개(55%), 비수도권 29개(45.0%)

## 02 창업사관학교 중장기 추진 방향

### 1 지역 창업사관학교를 지역 내 창업 거점으로 확대

- (특화트랙 확대) 기존 본교(안산), 서울, 경기북부에서 운영 중인 지역 주력 산업에 기반한 특화트랙\*을 전국 창사로 단계적 확대 도입 추진

\* 본교(안산)(소재·부품·장비 분야 IT융합·제조), 서울(ICT), 경기북부(군장병특화)

- 수도권 인프라·인력 집중, 정보 격차 등으로 지역 간 창업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특화 창업활성화 및 지역 창업 거점 확대 필요
- 지역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 및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주력산업 부문 창업 기업을 발굴 후 집중 육성하여, 지역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극대화 필요
- 특화트랙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주력산업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부산, 대구, 인천, 경남 등)\*에서 운영 후 양질의 프로그램과 운영 노하우가 전국 조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

\* 고성장기업 비중이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지역: 부산, 대구, 인천, 경남, 제주, 강원, 경북(17페이지 참조)

- (선정방식) 특화 트랙은 지역특화산업(48개), 규제자유특구(29개), 지역 창조경제센터 주요 지원분야(17개), 캠퍼스혁신파크(7개)\* 정부 지정 다양한 지역특화 업종 및 중진공 자체 지역산업성장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선정

\* 캠퍼스혁신파크 : 캠퍼스 내 창업 임대공간 조성 및 창업부터 성장까지 패키지 지원 (한양대 에리카, 강원대, 한남대, 경북대, 전남대, 창원대, 전북대)

-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특화 트랙을 마련하여, 기존 지역의 인력, 인프라, 생산 네트워크 등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과 창출

\* 특화트랙(예시)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관광), 인천(스마트물류, 바이오), 대구(로봇, 의료)

- (운영방식) 특히,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등 지역 혁신기관간 협력 기능을 강화하여, 단기적·분절적 지원이 아니라, 각 기관별 다양한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재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기존 추진 중인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에 창업지원 분과를 추가하거나, 지역 창업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지역 내 창업거점 총괄기능 강화

\* 지역 주도의 산업육성 및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구축 후 지자체,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이어달리기식 연계지원 - 참고 59페이지

\* 신규프로젝트 : 천안 지역 대학연계 청년 JUMPING-UP 프로그램

**【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특화 트랙(예시) 】**

구분	부산	인천	대구	경남
지역특화 산업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규제자유 특구	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스마트웰니스, 이동식협동로봇	무인선박,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창조경제 혁신센터 특화분야	스마트시티(IoT), 블록체인, 유통, 해양관광/물류	스마트물류,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케어, VR	무인이동체/로봇, 의료/바이오/헬스케어, 그린에너지, ICT/스마트시티	지능형기계, 의료/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지역성장 프로젝트	친환경 해양모빌리티 분야 K-뉴딜 선도기업 육성	스마트물류분야 선도기업 육성, 바이오 유망 중소기업 육성	로봇산업 공급망 스케일업, 대구 미래차 전환 프로젝트	경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캠퍼스 혁신파크·창업클러스터	-	바이오 특화 인천 스타트업 파크	경북대	창원대
특화 과정(안)	스마트시티, 친환경 해양모빌리티, 블록체인,	스마트물류, 바이오	로봇 의료/헬스케어	지능형스마트기계 선박기계, 항공

**【 지역특화산업(주력산업) 지정 현황 】**

분야	지역특화(주력)산업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디스플레이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

분야	규제자유특구
부산	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대구	스마트웰니스, 이동식 협동로봇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그린에너지 ESS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게놈 서비스 산업, 이산화탄소 자원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액화수소산업, 정밀의료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그린수소
충남	수소에너지, 탄소저감 건설소재
전북	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사업
전남	e-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용 헴프(대마), 스마트 그린물류
경남	무인선박,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세종	자율주행, 자율주행 실외로봇



**【 지역 창조경제센터 특화 분야 】**

분야	특화분야
부산	스마트시티(IoT), 블록체인, 유통, 해양관광/물류
대구	무인이동체/로봇, 의료/바이오/헬스케어, 그린에너지, ICT/스마트시티
광주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AI(인공지능), 에너지신산업, 광·ICT 융합
대전	ICT, AI, 첨단센서, 5G, 공공기술사업화, 소셜벤처
울산	조선해양, 안전산업, DT, 의료·바이오, 3D프린팅
강원	빅데이터·AI, 디지털헬스케어, 모바일커머스
충북	의약(제약·바이오), 의료기기·헬스케어
충남	에너지신산업, 친환경
전북	탄소융복합, 농생명·식품·바이오, ICT 융복합(핀테크)
전남	푸드테크, 바이오 활성소재, 저탄소·지능형 소재 부품 산업, 그린에너지
경북	ICT, 스마트 디바이스, 농·축산식품, 바이오헬스케어
경남	지능형기계, 의료/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ICT 서비스, 친환경
세종	스마트시티·팜, ICT, 바이오·헬스케어
서울	D.N.A., 콘텐츠, 유통, 소재/부품/장비
인천	스마트물류,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케어, VR
경기	인공지능, 빅데이터, 서비스플랫폼(ICT), 5G+, 지능형로봇

**【 중진공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

분야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부산	친환경 해양모빌리티 분야 K-뉴딜 선도기업 육성
대구	로봇산업 공급망 스케일업, 대구 미래차 전환 프로젝트
광주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 신규육성산업(AI)의 성장지원
대전	바이오·세종 자율주행산업 육성, 지역 전통제조업(금속가공, 기계장비) 구조혁신
울산	울산 3대 전통산업(자동차·조선·화학)과 신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강원	친환경 e-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뉴딜 육성, 액화수소산업 구조전환
충북	충북 3대 특화산업 육성(스마트IT부품, 바이오헬스, 수송기계), 스마트안전제어 규제특구 사업화
충남	한류음 지원 프로그램(차부품, 차세대디스플레이, 수소에너지), 지역대학 연계 청년 Jumping-Up
전북	그린 모빌리티 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육성
전남	전남 e모빌리티 신산업 육성
경북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지역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케어 프로그램
경남	경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제주	청정바이오, EV 인프라 산업혁신 프로젝트
세종	대전 바이오·세종 자율주행산업 육성 프로젝트, 중부발전 협력기업과 ESG
서울	서울 4대 비교우위산업 협업 육성(문화콘텐츠, 바이오·의료, 패션·기능성섬유, 지능형ICT), K-패션, 뷰티산업 등 유통·서비스업 협업 육성
인천	스마트 물류 분야 선도기업 육성, 바이오 유망 중소기업 육성
경기	K-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탄소중립, ESG 경영확산

## 2 스케일업 지원 강화

### ○ 업종별 특화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스타트업 생태계가 양호\*하고, 액셀러레이터, VC 등의 네트워크가 풍부한 수도권 내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예시 : 스케일업 창업사관학교) 신설

\* 서울 창업생태계 세계 10위(Startup Genome, '22년)

- 유망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대상 제품 및 비즈니스 모델 개선과 사업모델 시장검증(PoC) 지원을 통해 seed 투자(수천만~5억원) 단계 스타트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일부 초기 시장 검증 완료, 유망 창업 아이템과 기술 및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보유하고, 최소 2명의 창립자로 구성된 기업
- (모집방식) 매년 주력업종\*을 지정·운영하여 동종업종간 네트워크 강화
  - \* 헬스테크, 디지털(에듀테크, 핀테크, 블록체인, 보안 등), 딥테크(AI, 신소재, 에너지, 물, 생명공학 분야 획기적인 기술 보유) 등
- (운영방식) 민간 액셀러레이터, 연구기관, 대학 등 협업하여 운영
  - 유망기업 발굴, 창업 지원 멘토링, 후속 연계지원 등 강점 분야는 직접 수행하되, 투자, 네트워킹 등 전문분야는 민간과 적극적인 협력 추진
- (지원내용) 창업교육, 맞춤형 코칭, 인력채용, 투자 등 지원
  - (맞춤형 코칭) 전담 코치를 통한 비즈니스 활동 전담 코칭
    - \* 사업개발, 제품개발, KPI 설정, 세일즈 및 마케팅, 영업교육, 경영(세무 등), 특허 등 분야 스케일업 전담 코치로 구성 (대기업 퇴직자, 경험 많은 연쇄창업가 등)
    - \* LinkedIn 등 비즈니스 플랫폼 등을 활용한 활발한 코칭 모집 필요
  - (멘토링) 업계 전문가, 대표자 등을 통한 1:1 멘토링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검토·보완
  - (인력채용) 스타트업 인력 모집과 조직관리 코칭 지원
  - (창업교육) 투자자 준비 워크숍, 금융·법률·투자제안 프로그램, 피칭준비
  - (데모데이) 선별된 Seed 투자자 대상 피칭 기회 제공
  - (사무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내 무료 사무공간 제공

### 3 창업사관학교 노하우를 활용한 사업 확장

#### ○ 창업사관학교의 글로벌화 : 글로벌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 (개요) 창업사관학교의 국내 창업교육·멘토링과 중진공 해외거점(BI·KSC)의 현지화·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전용 프로그램 운영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스타트업 지원 노하우와 해외거점의 현지화 지원 인프라·역량을 활용한 효율적 사업 운영 가능
  -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글로벌지향형(Born Global)\* 유망 기업 대상 맞춤형 시장진입 컨설팅, 멘토링·코칭,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일괄 지원하여 시리즈 A 단계\*\* 스타트업으로 육성
- \* 우리나라는 싸이월드, MP3 Player 등을 세계 최초로 사업화 성공했으나, 국내 시장에 집중된 결과 페이스북, Apple 등 후발주자에 시장 주도권을 상실함(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사업 추진체계 고도화 용역, 2019)
- \*\* 스타트업 투자 라운드는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등으로 구성되며, 시리즈 A 단계에서는 사업모델 시장검증(PoC)을 완료하고, 장기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스케일업이 필요함
  - 시드(창업초기, 수천만~5억원), 시리즈A(PoC 완료, 5억~50억), 시리즈 B(사업확장, 50억~200억), 시리즈 C(시장점유율 가속화, 수백억~수천억)
- (지원대상) 해외진출이 가능한 유망 아이템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 \* 선정요건(예시) : 2인 이상의 창업자(1인은 기술기반 창업자), B2B 비즈니스 모델, 확장가능한(scalable) BM, 해외시장 진출계획, 고객 보유 등
  - \* 지역 창업사관학교와 수도권 스케일업 사관학교 졸업기업도 참가 가능
- (모집방식) 상시 모집 방식으로 진행, 분야별 총 8회
  - (분야 예시) 핀테크, 디지털 기술, 모빌리티, 스마트에너지, 생명과학, 신소재 등
- (선정방식) 국내외 VC, 엔젤투자자, 기업체 임원,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 중진공 해외 거점 등을 활용하여 해외 투자가 등도 섭외

- (지원내용) 맞춤형 시장 진입 컨설팅, 투자자·VC 피칭 기회 제공, 멘토링·코칭
  - (맞춤형 시장 진입 컨설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을 활용한 성장전략, 판매계획, 마케팅, 법률 및 재무 등 맞춤형 1:1 컨설팅 제공
  - (투자) 현지 투자자, VC, 업계전문가 대상 피칭 기회 제공
  - (멘토링) 해당 업계 전문가, 연쇄창업가 등을 통한 멘토링, 코칭 지원
  - (네트워킹) 잠재 파트너, 고객 매칭

○ **창업사관학교 노하우를 활용한 온라인 창업진단·교육과정 Launchpad 운영**

- 사관학교의 창업교육, 코칭 내용을 온라인 자가진단과 교육과정 서비스로 제공하여, 사업 지원 대상 확장 및 창업기업간 네트워킹 기회 확대
  - \* 사업대상 : 국내 예비창업자 뿐만 아니라 유학생 등 재외국민, 외국인 기술창업가 등
  - \* 사업내용 : 아이디어 검증, 시장규모 예측, 창업에 필요한 리소스 등 안내
- 창업기업 대상 창업 준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점진적 결과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 제공
  - \* 자가진단(예시) : 사업개발(제품-시장-가격 적합성, 가격모델, 고객관계), 제품개발(기능계획, 테스트), 영업·마케팅(시장진출전략, 광고), 경영관리, 투자단계, IPR 등
- 기존 이론 중심의 창업교육에서 탈피, 성공 창업가와 투자자와 협력하여 생생한 사례 중심(창업성공·실패 사례)으로 콘텐츠 구성하여 차별성 확보
-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간 비즈니스 모델 피드백을 수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기능 제공

**< 참고 2. Launch by Station F >**

- 세계 최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프랑스 파리 Station F에서 구축한 온라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 **(특징)** 기업가와 투자자가 함께 창업이론과 실습 관련 콘텐츠를 구축
  - \* Lydia(프랑스 유니콘), Kima Venture, EQT(벤처투자) 등과 함께 구축
- **(지원내용)**
  - (이론) 아이디어 검증, 시장규모 예측, 홈페이지 구축방법 등 소개
  - (실습) Google Workspace, Shopify, Bubble(코딩없이 웹사이트 구축) 등의 툴을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사용 가능
  -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즈니스 모델 관련 피드백 공유, 네트워킹 가능

## ○ 창업지원사업을 활용한 ODA 사업 확대 추진

- 창업사관학교 사업은 창업가를 선발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우간다에 창업사관모델을 전수하고, '22.6월 현지 창업사관학교 개소
- 또한, ODA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제무역센터(ITC) 등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구축함
- 중진공은 창업사업 기획·집행 노하우 및 28개 해외거점을 중심으로 구축된 현지 정부·국제기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음
  -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이어드림 등 다양한 창업사업을 활용한 ODA 사업 확대 추진 검토 필요
- ODA 협력 사업을 통한 국내 창업기업의 신시장 진출 확대 기회 제공
  - 협력국의 IT, SOC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SW/ICT)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현지 거점을 통한 다각적 지원)
  - 국내 기업의 기술 라이선스, 합작투자, OEM 생산, 설비 이전 등 기술교류사업 연계 추진

## 4 대내외 정책수단과의 원활한 연계 추진

### ○ 혁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금융기업 다양화

(※ 출처: KOSME 중소벤처기업 정책연구 리포트(2021))

-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 정책자금 융자방식은 한계점이 존재함
  - 신산업 분야 혁신 창업기업은 높은 연구개발투자로 인한 적자 발생으로 재무제표와 신용도가 악화되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음
  - 또한, 융자는 조달 가능한 금액에 한계가 있고, 성공적인 시장안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어, 자금조달 방식으로 투자를 선호함

-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혁신 창업기업 특성에 맞게 기술·사업성 위주의 평가가 필요하며, 전통적인 용자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기술가치, 사업 확장 가능성, 미래 현금흐름 등을 기반으로 한 신규 금융지원 방식 검토 필요
-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 내 투융자복합금융 성장공유형자금의 평가·지원 방식이 혁신금융 지원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임

**【 혁신기업 대상 지원 정책자금 】**

구분	구분	내 용
혁신창업 사업화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 정부·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사업화 초기 기업 대상(제품 양산 후 3년 경과된 기술은 제외) · 연간 30억원(운전 5억원) 한도 내에서 용자 지원(5~10년 이내(2~4년 거치))
투융자 복합금융	성장공유형 자금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 대상 · 연간 60억원 이내 전환사채/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

- 또한 혁신 스타트업의 원활한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창업 초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이 중요하나, 창업 7년 이상 예비유니콘 기업 대상 정책 지원은 부족한 편

\* 민간투자를 받는 예비 유니콘기업도 지분희석 방지하기 위해 공적자금 용자 희망

- 신산업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하여 투·용자 복합금융\*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금융지원 방법 시도 검토 필요

\*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벤처기업 대상 투·용자 특화 지원

**〈 참고 3.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용자 (Venture Debt) 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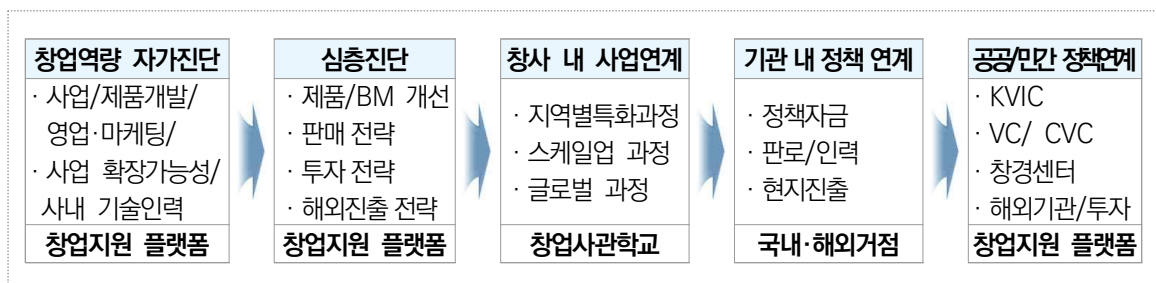
- **(특징)**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소액의 “신주 인수권 획득 및 후속 투자자금으로 상환” 조건으로 벤처투자 유치기업 대상 저리 용자해 주는 제도
- **(작동원리)** 기업-용자기관-투자기관 3자간 신뢰 및 이해관계 기반
  - (기업) 지분희석 방지, 후속투자 유치 전 운영자금 확보, 후속투자 유지 확률 향상
  - (용자기관) 리스크 분산을 위해 VC 후속투자를 상환 재원으로 활용, 금리가 낮은 대신 신주인수권 획득(통상 용자액의 1~2%)
  - (투자기관) 후속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시간 확보, 투자기업 가치 상승



### ○ 대내외 다양한 창업지원 수단을 연계하여 맞춤형 원스톱 지원

- 진단, 정책자금(창업자금, 스케일업 금융), 인력, 판로·수출, 해외거점(BI/KSC) 등 기관 내 다양한 지원 수단 및 후속 민간투자·CVC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창업기업 대상 맞춤형 원스톱 지원
  - (온라인 자가진단) 창업자 대상 창업 준비수준(사업·제품 개발, 영업·마케팅, 투자 등) 진단 점진 결과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 제시
  - (심층진단) 산업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제품 및 BM 개선, 투자전략 등 심층진단을 통한 창업단계별 로드맵 제공
  - (사업 내 연계) 지역별 창사 특화트랙을 통해 양성된 유망 기업 대상 스케일업 및 글로벌 프로그램을 단계별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 창사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 글로벌 스케일업 프로그램
  - (기관 내 정책 연계) 자금, 판로·수출, 인력, 해외거점 등 기관 내 다양한 지원수단을 혁신 스타트업 환경과 특성에 맞게 고도화 추진
    - \* 창업자금 : 투자기능 강화를 위해 융자 위주 → 투융자복합방식으로도 지원 검토
    - \* 판로·수출 : 판매 거래선 발굴 → CVC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파트너 매칭, 크라우드 펀딩, 글로벌 창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등
    - \* 인력 : 스타트업 인력 양성(AI 실무인력) 및 채용 연계 지원, 스타트업 조직 관리 코칭
  - (타 기관 정책 연계) 창업사관학교 지원기업 정보(매출, 투자, 고용 등) 등을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대내외 공유함으로써, 기업 지원기관, VC, 대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함
    - \* 창업사관학교 오픈 플랫폼을 통한 유망기업 공유 → KVIC, VC, CVC, 해외투자 등 연계 지원 강화

####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 체계 】



## 03 창업사관학교 신규 프로그램 제안

### ○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기업의 성장이력(매출·투자·고용 등)\*과 업종별·품목별 성공·실패 사례 등 생생한 현장 정보를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창업사관학교 사업 참가업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창업기업 대상 정보제공 기능 강화
  - \* 기업정보(제품, 대표자 등), 매출, 투자, 고용, 성장단계별(seed, series A·B·C, IPO) 투자 유치방법·금액, 특허, 소비자 거래액, 해외시장 진출시기, 진출국, 관련 보도기사 등
  - \* 데이터 수집방법 : 5년간 이력관리 자료, 머신러닝, 데이터 담당자 등(데이터 게시 전에 검토 필요)
- 플랫폼 내 정보공유(Q&A), 투자매칭, 비즈니스 협업 메뉴로 구성
  - (정보공유·네트워킹) 기업들은 성장단계별로 비슷한 종류의 애로사항과 문제들을 겪고 있으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창업자와 정보 공유를 통해 문제해결 가능
    - \* 90% of entrepreneurs' problems are solved by other entrepreneurs(창업가들의 문제의 90%는 다른 창업가가 해결할 수 있음 (Station F(프랑스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
  - (투자매칭) 투자 및 자금조달 현황\*, 창업자, M&A, 기술·특허현황, 고용, 재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발굴 가능. 스타트업과 투자자 매칭 기회 제공 등
    - \* 투자단계, 투자유치금액, 투자자 등
  - (비즈니스 협업)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과 생산·네트워크 등 사업화 기반을 가지고 있는 중소·대기업과 협업 비즈니스 기회 제공
    -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짧은 개발주기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생산·마케팅 노하우 등을 보유한 기존 기업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중장기적으로 축적된 정량적, 정성적 스타트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유망기업 대비 경영성과(매출액, 투자규모)와 시장 및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기업의 사업전략과 성장경로 로드맵 제시

## ○ 스타(트업)-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 Startups meet SMEs

- (개요) 신기술 개발 및 제품(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짧은 개발주기를 가진 스타트업간 협업 프로그램 지원
  - 중소기업은 IoT(사물인터넷), AI 등 분야에서 스타트업과 협력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 개발이 가능
    - \* 협력방식 : 신규 개발 프로젝트, 공급-협력사 관계 구축, 판매 파트너쉽 등
  - 중소기업 대상 기존 비즈니스 혁신과 신규 사업기회 창출, 스타트업에게는 국내·외 마케팅 협업 파트너 발굴과 사업화 기회를 제공
    - \* (중소기업) 기존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신규사업 창출, (스타트업) 사업화 기반 마련

### 【 스타트업·중소기업 협력사례 】

평화산업(중견)· 엠제이비전테크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형태) 중견기업이 스타트업 인수합병</li> <li>• (협력내용) 스타트업의 지능형 CCTV 기술을 발전시켜,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분석하는 머신비전 검사기와 AI 기술적용 등 비즈니스 확장</li> <li>• (기대효과) 제품 신뢰도 상승, 전문인력 충원 등으로 사업 확장 가속화</li> </ul>
대성하이텍(중소)· 릴리커버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형태) 중소기업이 스타트업 초기 투자 및 제품사업화 협력</li> <li>• (협력내용) 공작기계 제조기업과 맞춤형 화장품 뷰티테크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화장품 즉석 제조 로봇시스템 개발</li> <li>• (기대효과) 초기 스타트업 대상 자금, 마케팅 협업, 경영노하우 제공 등</li> </ul>

\* 출처: 중견기업·스타트업 협력 펀드 절실(한국경제, 2021.9)

- (지원내용) 스타트업과 중소기업간 비즈니스 협력 매뉴얼, 정보제공, 네트워킹,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사업 제공
  - (스타트업 협력 매뉴얼) 중소기업 입장에서 스타트업의 제품개발과 시장출시 방법 등\*을 소개하고, 스타트업과 네트워크 방법(스타트업 참여 이벤트 등) 안내
    - \* Lean Startup(린스타트업), 린캔버스, MVP(최소요건기능제품) 등
  - (정보제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과 협력 경험과 문제 해결방식 등을 조사하여, 성공·실패 노하우 등을 제공
  - (네트워킹)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회 등과 협업하여 워크숍을 개최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기회 제공
  - (협업프로젝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
    - \* 스타트업의 IoT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조현장 디지털화 지원 등

## ○ 딥테크 스타트업 양성 프로그램

- (사업개요) 기존 사업계획 위주로 지원업체를 선발하는 방식에서 탈피, 공학, 기술 분야 우수 전문인력을 선발 후 팀 구성, 사업계획 수립, 제품출시 등 기술창업(딥테크 스타트업\*)의 전 과정을 지원
  - 잠재력이 높은 기술 분야 전문인력 선발 후 공동창업 파트너 구성, 사업 아이디어 개발, 제품 또는 서비스 출시 등 지원 - Entrepreneur First\*\* 방식 착안
- \* 공학, 과학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첨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제조·판매하는 스타트업을 의미.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나 독보적인 성과를 갖고 있어, 일반적인 서비스 스타트업과 달리 모방이 어려움
- \*\* 공학, 과학 등 기술분야 우수 졸업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모델이 아니라, 지원자의 포부와 재능을 기준으로 평가 후 팀 구성, 문제 식별, 멘토링 등 지원 - 참고 4
- (지원대상)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AR·VR(증강·가상현실), 로봇 등 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석·박사, 기술 실무경험 보유 등)

### 【 딥테크 스타트업(예시) 】

분야	스타트업(주요제품 / 서비스 내용)
AI	코그넥스코리아(AI 이미지 해석 솔루션), 업스테이지(AI 솔루션),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 크래프트테크놀로지(AI 기반 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코어라인소프트(AI 기반 폐암 검진 솔루션), 루닛(의료 이미지 분석),
빅데이터	지니너스(빅데이터 기반 의료솔루션), 모비젠(빅데이터 기반 데이터처리시스템), 실크로드소프트(데이터동기화), 플리토(집단 지성 AI 번역),
IoT	원프레딕트(IoT 기반 산업설비 예측, 진단솔루션), 씨안테크(IoT 담보관리 솔루션), 팀그릿(초저지연 IoT 원격제어), 액셀로(극한 환경 IoT 설비), 베스텔라랩(IoT 기반 실내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베어로보틱스(자율주행 로봇), 스트라드비전(비전기반 자율주행 SW), 라이드플럭스(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 모라이(자율주행 시스템 안정성 검증 플랫폼)
AR/VR 메타버스	맥스트(VR/AR 솔루션), 스페이셜시스템즈(메타버스 플랫폼), 원이멀스(VR 기반 FPS게임), 더블미(메타버스 가상 체험 콘텐츠), 록시드랩스(VR 사용자 분석)

\* 출처: 4차 산업혁명과 딥테크 스타트업('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언론기사 등 종합

- (지원내용) 팀 구성 및 사업 아이디어 식별(3개월), 벤처캐피탈 멘토링(3개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사무실 공간, 사업 준비자금, 행정 및 법률 지원

#### 〈 참고 4. Entrepreneur First 〉

- **(설립년도)** '11.9월, 영국
- **(설립목적)** 대학 우수 졸업생들이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  
\* 맥킨지 컨설팅사가 초기 시드펀딩 제공, KPMG, Microsoft 등의 기업이 후원
- **(사업목표)** 컴퓨터공학, 과학, 수학, 엔지니어링 분야 최고 기술인력을 포부와 재능을 바탕으로 선발 후 창업팀 구성, 사업 아이디어 개발, 투자 확보 등의 기회 제공
- **(지원내용)** 총 6개월
  - (1차, 3개월) 창업팀 구성 + 문제인식(제품을 개발하기 전 해결할 문제 포착 중요)
  - (2차, 3개월) 1차 참가자 중 피칭을 통해 30% 선발, 사업 운영 멘토링
  - 사업준비 비용, 사무실 공간, 행정 및 법률 지원
- **(주요실적)** 총 5,000여명 지원, 300개사 설립 (지원업체 기업가치 50억 달러)
- **(지원업체)** Tractable(컴퓨터 비전, 기업가치 10억 달러), Magic Pony Technology(AI, 트위터 1.5억 달러 인수), BloomsburyAI(페이스북 인수 등)
- **(네트워크)** Reid Hoffmann(LinkedIn), Demis Hassbis(Google Deepmind) 등 세계 최고 기술창업자·투자자

○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프로그램 (※출처: KOSME 중소벤처기업 정책연구 리포트(2021))

- 현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기업형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현지 대기업과의 협력기회 제공 및 스케일업 지원
  - (단기) 현지 기업주도형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과 국내 우수 스타트업(청년 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등)의 제품·서비스 등을 소개하는 플랫폼 사이트 구축
  - (중장기) 현지 CVC·액셀러레이터 연계 프로그램 참가 지원 및 참가 완료 후 중진공 현지거점(BI, KSC)을 통한 현지 시장 안착 지원

【 유럽 현지 CVC 스타트업 프로그램 】

기업명/프로그램명	중점 지원분야	지원내용
BMW(자동차)/ Startup Garage	· 자율주행, 전기차, 디지털카 로보틱스, 지능형 작업장, 물류 금융 및 차량 서비스,	· 기술 검증 기회 제공 · BMW 랩, 공장, 시스템 활용 · BMW 엔지니어 피드백 · 자동차 핵심 의사결정자와 네트워킹
Daimler(자동차)/ Startup Autobahn	· 글로벌 스타트업 스카우팅 프로 그램으로 모빌리티, IT 섹터, 화학 산업, 물류부분 등	· (1차) 100일간 스타트업 심사 · (2차) 2차 선발자 대상 Daimler와 공동 프로젝트 진행 및 시제품 개발 ·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및 기술자문 · 최종 선발기업 대상 기술협력 또는 투자
SAP(IT)/ SAP.iO Foundries	· (사업) ERP, CRM 등 IT 솔루션 · (기술) AI, 머신러닝, 블록체인,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사물인터넷 · (산업) 이산·조립산업(항공, 산업 기계 등), 에너지, 천연가스 산업, 금융서비스, 소비재, 공공서비스	· 영업, 제품전문가와 솔루션 검증 지원 · 글로벌 VC 커뮤니티 연계 · 솔루션 검증(고객미팅, 웨비나) · 공동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제고 · 사무공간, 인재풀 네트워크 제공
Bayer(화학)/ CoLaborator, G4A	· (CoLaborator) 생명과학 스타트업 대상 인큐베이팅 서비스 (실험실, 사무실 등 제공) · (G4A)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대상 자금과 파트너십 제공	· 실험실 및 사무실 등 인프라 제공 · 입주 스타트업, 연구기관, R&D 바이엘 전문가 등과 네트워킹 · (Growth Track) 전환사채 대출(33백만~134 백만원), 바이엘 경영진, 업계전문가 멘토링 · (Advance Track) 파트너십(M&A, 라이선스 계약, 대규모 투자 등
Loreal(뷰티)/ Founder's Factory	· 데이터, 이커머스, 리테일 혁신, AI · 인플루언서들, 커넥티드 디바이스, IoT(진단, 스캐너 등) · 에듀테크, 맞춤형 지원	· 로레알팀 전문 멘토링 · 제품/시장 적합성 테스트 · 투자자 소개(기업당 평균 40개) · 프로그램 기간 : 6개월

\* 출처: 각 회사 홈페이지



## ○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

- (개요)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한 초기 자금 조달, 제품 시장성 테스트, 판로 개척, 브랜드 홍보 등 지원
  -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민간 소액 투자제도로써, 스타트업이 제품·서비스 개발 및 출시를 위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스타트업이 제품을 정식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수렴하는 테스트베드 역할로도 활용 가능함
- \* 크라우드펀딩 : (국내)와디즈, 카카오메이커스, 텀블벅, (미국) 킥스타터, 인디고고 등
- (지원내용) 크라우드펀딩 입점 설명회, 크라우드펀딩 등록비, 온라인 마케팅 비용, 시제품 개선, 인증 비용 등 지원
  - (교육·컨설팅) 크라우드펀딩 입점방법, 동향, 마케팅 전략 설명회, 컨설팅
  - (크라우드펀딩 등록관련 경비) 크라우드펀딩 등록 수수료, 등록용 콘텐츠 (페이지, 홍보동영상 등) 제작비, 펀딩등록 대행수수료, 광고비(키워드, SNS 등)
  - (시제품 개선) 시제품 고도화, 성능시험 비용, 기술개발 비용 등

###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예시) 】

구분	구분	내 용
국내	와디즈	·'12년 설립된 국내 대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아이디어 상품, 벤처기술 관련 프로젝트가 다수 차지. 누적 중개금액 6,000억, 누적 프로젝트 37,000건, 월 방문자수 10백만명
	카카오 메이커스	·'16년 설립된 공동 주문 모델을 통해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플랫폼으로, 누적거래액 5,000억, 4,800곳 창업자 대상 생산 기회 제공 등
	텀블벅	·'11년 설립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예술,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음. 누적 프로젝트 25,000개, 누적 펀딩액 2,000억
국외	킥스타터	·세계 최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09년 설립 후 2,100만 후원자가 223,394개 프로젝트 지원. 펀딩 성공률은 약 40%로 총 펀딩금액은 6,728백만 달러
	인디고고	·'08년 설립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월 평균 방문객 10백만명(235개국), 후원자 9백만명

\* 출처: 각 회사 홈페이지

# V 결론 :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01 중진공 창업지원사업 방향성 모색

### 1 신규 정책지원 분야 관점

#### ○ 창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중심으로 지원정책 변화 필요

- 포스트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디지털·친환경 대전환으로 인해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면서 창업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음
  - 사업화 모델도 기술 스타트업\*과 비대면경제 관련 증개 플랫폼 등이 크게 증가했으며,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소비재 분야는 꾸준히 증가 추세
    - \* 인공지능·빅데이터, 가상융합현실(XR), 사물인터넷(IoT), 핀테크(FinTech) 등
- 또한, 지역 주력산업 쇠퇴 지역의 기업 신생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매출 및 고용 증대 등 국가 경제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스케일업 기업 비중도 정체 수준
  - 대구, 경북, 부산 지역의 기업 신생률이 낮게 나타나 타 지역 대비 창업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며, 울산, 광주, 경남 지역은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았음
    - \* 기업의 신생률(%) : (대구) 13.6, (경북) 13.9, (부산) 14.0, (경남) 14.5. (전국) 15.5
    - \* 생존율(%) : (울산) 28.3, (광주) 29.6, (경남) 29.9. (전국) 32.1
  - OECD 주요국과 비교시 한국의 고성장기업 비중은 하위권에 위치
    - \* 스케일업 기업 비중(%) : ('16) 9.9, ('17) 9.9, ('18) 10.3, ('19) 9.7, ('20) 9.2
    - \* 국가별 스케일업 기업 비중 (%,'19) : (한국) 9.7, (네덜란드) 14.5, (스웨덴) 12.6, (프랑스) 12.1
- 스타트업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스케일업 지원 강화방안 모색 방안이 필요한 시점

## ○ 신규 정책지원 강화 분야 : 스케일업·지역 유망 스타트업·제조업 창업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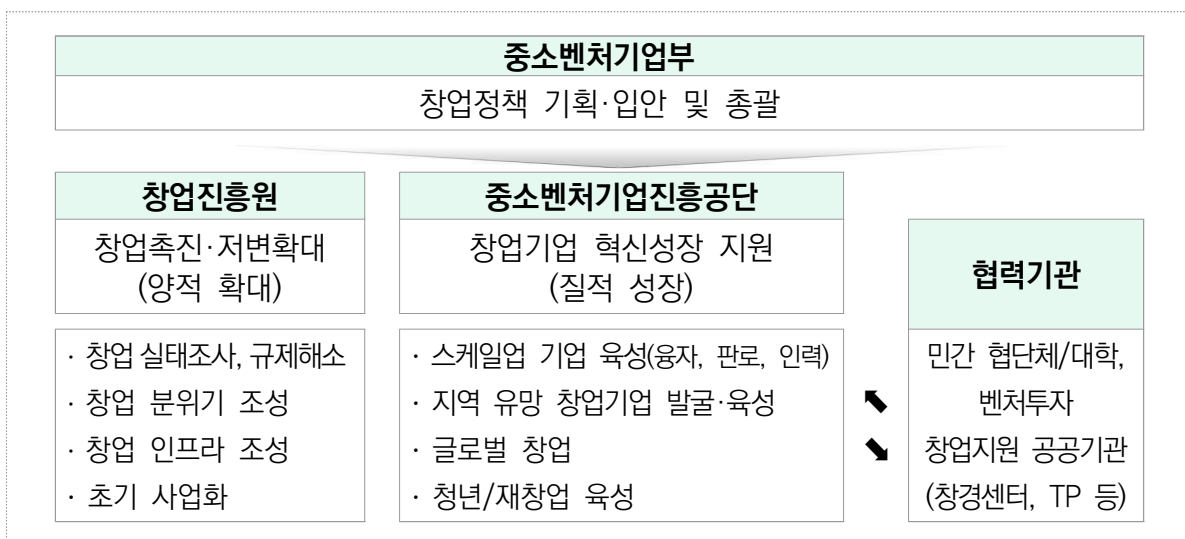
- 미국 등 주요국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하여 직·간접 금융지원, 규제개선 등 창업 환경 개선, 멘토링·창업교육 등 네트워킹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 또한, 영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에서는 스타트업 정책의 초점을 양적 확대 위주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육성 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 이는 고성장기업의 매출·고용 성과가 우수하여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스케일업 정책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임
- 국내 창업지원사업은 융자,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보육 등 전 부문에 걸쳐 378개가(2022년) 추진 중이며, 예산규모도 3.6조원으로 2016년(5,764억) 대비 6.3배 이상 증가
  - 분야별로는 창업 성장단계별 패키지 지원이 가장 큰 비중(34.2%)을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 민간투자 연계지원, 특화산업 창업, 청년창업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다수의 정책이 추진 중임
- 다만, 해외 주요국 대비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 정책, 지역 유망 스타트업 육성 정책, 제조업 창업 촉진을 위한 특화 정책은 부족한 수준으로 해당 분야 정책지원 강화 필요
  - 스케일업 지원 정책은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300억) 정도이며, 기존 창업 단계별 패키지 지원사업도 업력 위주로 사업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함에 따라 개별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체계적 스케일업 지원 정책은 부족
  - 지역 유망 스타트업 육성 정책은 시설 및 보육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있어 지역 산업 구조적 특성에 맞는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정책은 부족
  - 제조업 창업 특화 지원 정책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50억)과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473억)이 유일함

## 2 기관 역할 강화 관점

### ○ 창진원(창업 저변 확대)와 중진공(창업기업 혁신성장 지원) 역할 재정립 및 협업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중기부 소관 창업정책은 대부분 창진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제조·재창업 등 민간소외·취약 부문과 스케일업 육성 부문은 민간과 협력하되, 공공주도의 직접집행 역할도 중요함
  - 공공주도 정책이 효과적인 취약부문과 스케일업 영역은 중진공과 같이 현장 집행조직 및 기업진단·평가 노하우, 다양한 정책지원 수단을 가진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하여 정책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
- 창진원과 중진공은 중기부 산하 대표적인 창업지원기관으로 기관별 강점과 고유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창진원은 창업 생태계 구축, 중진공은 中企 혁신성장 지원 기능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상호 협업체계 구축 필요
  - 창진원은 초기 창업 촉진과 초기 사업화 등 창업 저변 확대 부분을 담당하고, 중진공은 현장 집행 조직을 바탕으로 지역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국내외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스케일업으로 육성하는 역할 담당

#### 【 창업지원사업 지원 체계】



## ○ 지원 영역 강화 부문 : 지역특화 유망 창업기업 육성·발굴, 스케일업 육성, 글로벌화, 스케일업 규제혁신

- (지역특화 유망 창업기업 육성·발굴) 지역 창업사관학교를 특성화하고, 사관학교를 통해 육성된 지역 유망 창업기업은 스케일업 트랙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및 특화산업 유망기업 육성 강화
  - \* 각 지역별로 구축되어 운영 중인 지역 혁신성장 프로젝트 협업 거버넌스와 연계
- (스케일업 육성) 현장거점 기반으로 유망 창업기업 발굴 후 스케일업 전용 진단 모델을 기반으로 필요한 정책 수단을 집중적으로 연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도약과 스케일업 육성 분야 지원 강화
- (글로벌 진출 지원) 국내 거점을 통해 발굴된 글로벌 유망 기업 대상 해외거점의 현지화 지원사업, 네트워킹 등을 연계 지원하여 글로벌 유니콘으로 육성
  - \* 창진원은 해외거점 부재, 코트라는 유망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국내 조직 미비
- (규제혁신) 스타트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스케일업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규제 발굴 및 해소 역할 수행

### 3 창업사관학교의 중장기 방향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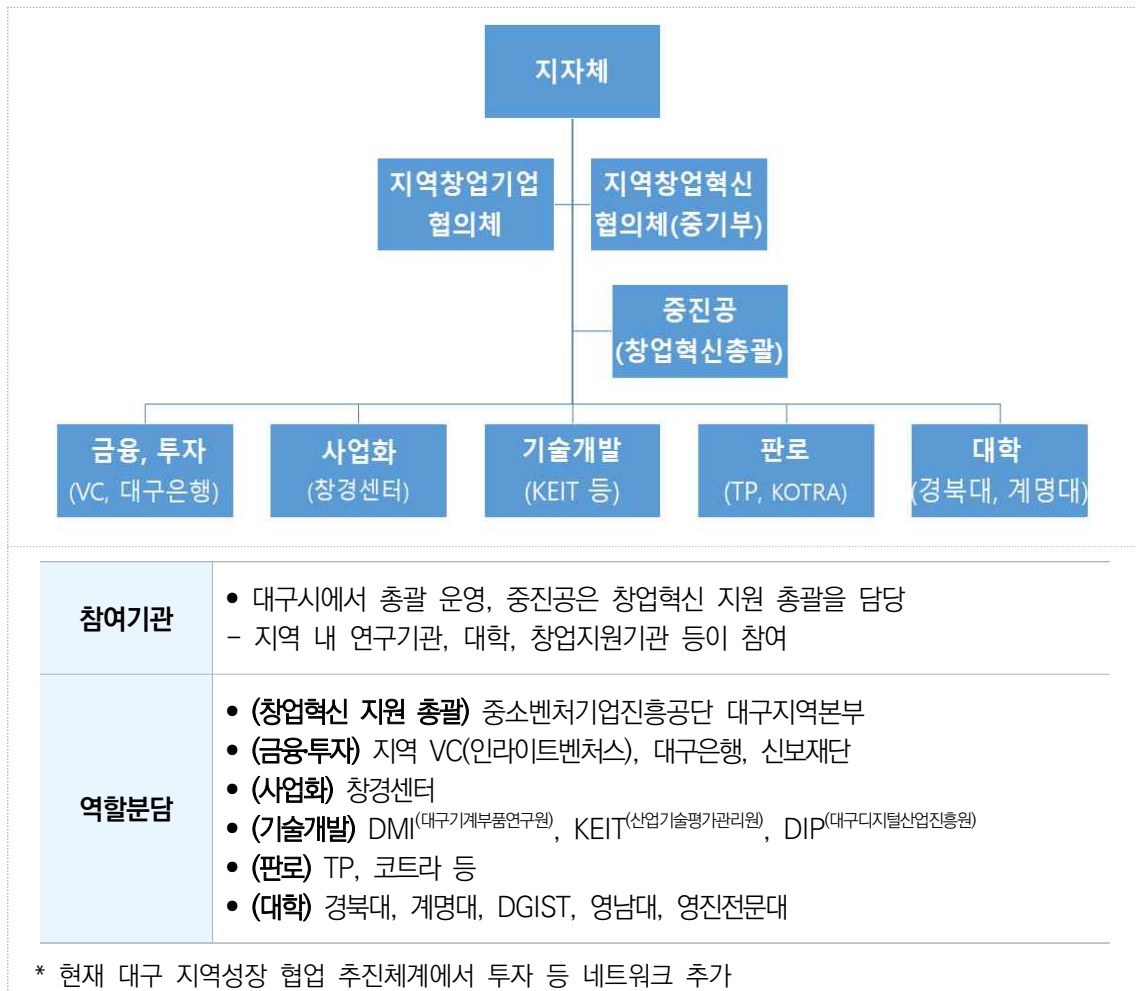
## ○ 국내외 거점, 협업 네트워크 등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사관학교 중장기 방향성 설정

- 창업사관학교의 강점은 지역본부, 지역 창업사관학교 등 지역거점을 통한 유망기업 발굴과 지역 혁신기관과 협력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는 점임
- 또한, 국내외 직접 집행조직을 보유한 유일한 기관으로, 그간 축적된 국내 창업교육·멘토링 노하우와 해외 현지 창업 지원 인프라(BI·KSC)를 활용한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원스톱 지원 가능
  - \* (글로벌특화과정) 국내 창업멘토링 + 해외 현지화 지원 프로그램

### ○ 지역 창업사관학교를 지역 내 창업 거점으로 확대

- 기존 본교(안산), 서울, 경기북부에서 운영 중인 지역 주력산업에 기반한 특화트랙을 전국 창사로 확대 운영
  - 특화트랙 분야는 지역별로 기 지정된 특화산업, 규제자유특구, 창조경제센터, 혁신파크 및 중진공 자체 지역산업성장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선정
    - 특히, 지역별로 구축된 협업 거버넌스에 창업지원 분과를 추가하거나,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정책 시너지 창출
- \* 지자체, 지역 내 연구기관, 대학, 혁신 지원기관(창경센터 등) 협업하여 창업혁신 프로젝트 추진(예시 : 천안 지역 대학연계 청년 JUMPING-UP 프로그램)

#### 【 대구 지역 주력산업 혁신성장 및 창업기업 육성 협업 추진체계(예시) 】





## ○ 업종별 특화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스케일업 지원 강화

- 스타트업 생태계가 양호하고 VC, 액셀러레이터 등의 네트워크가 풍부한 수도권 내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검토
  - \* 서울 창업생태계 세계 10위(Startup Genome, '22년)
- 유망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대상\*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seed 투자(수천만~5억원) 단계 스타트업으로 육성
  - \* 매년 주력업종(헬스테크, 디지털, 딥테크 등)을 지정·운영하여 동종업종간 네트워크 강화
- 국내외 현장집행 거점을 바탕으로 유망기업을 발굴 후 민간 VC, 액셀러레이터,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맞춤형 코칭·멘토링, 인재확보, 창업교육, 네트워킹 등 지원
  - \* 유망기업 발굴, 멘토링, 후속 연계지원 등 창업사관학교 강점 분야는 직접 수행하고,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 분야는 민간과 협력하여 시너지 창출

## ○ 창업사관학교 지원 노하우를 활용한 사업 확장 : 글로벌화·온라인화·ODA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의 국내 창업교육·멘토링과 해외거점(BI·KSC)의 현지화 지원 프로그램을 융합한 글로벌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 \* 국내 거점을 활용한 글로벌 진출 유망 기업 발굴과 해외거점을 활용한 현지화 지원이 동시에 가능
  -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글로벌지향형(Born Global) 유망 기업 대상 맞춤형 시장진입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여, 시리즈 A 단계 스타트업으로 육성
- (온라인) '11년 설립 후 '12년간 축적된 창업지원 노하우(코칭, 창업교육)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여 사업지원 대상 확장 및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 기존 창업자의 성공·실패 사례 중심의 콘텐츠 구성, 참가자간 비즈니스 모델 피드백을 수렴하고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능 제공
- (ODA) 창업사업 기획·집행 노하우 및 해외거점의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창업지원사업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대 추진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이어드림 등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으로 ODA 협력 확대
  - ODA 협력사업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력국 대상 국내 창업 기업의 IT 등 인프라 구축 및 기술교류 등 현지 시장 진출 기회 제공

### ○ 대내외 정책수단과 연계 강화

- (신산업 분야 금융기법 다양화)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정책자금 용자방식은 한계점\*이 존재함에 따라 기업의 기술가치, 사업 확장 가능성, 미래 현금흐름 등을 기반으로 한 투·용자 복합금융 확대 등 신규 금융지원 방식 확대 검토 필요

\* 높은 연구개발투자로 인한 적자 발생으로 인해 재무제표와 신용도가 악화되어 자금 조달 애로 발생. 용자는 조달 가능한 금액에 한계가 있고, 성공적인 시장 안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어 자금조달 방식으로 용자보다 투자를 선호

- (맞춤형 원스톱 지원) 진단, 정책자금, 인력, 판로·수출, 해외거점 등 기관 내 다양한 지원 수단 및 후속 민간투자 CVC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원스톱 지원

\* 진단, 자금, 인력, 판로·수출 등 지원사업을 혁신 스타트업 환경과 특성에 맞게 고도화 추진

### ○ 창업사관학교 신규 프로그램 제안

구분	내용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배경) 창업사관학교 지원기업의 성장이력(매출·투자·고용)과 성공·실패사례 등의 정보를 플랫폼을 구축, 다수의 창업기업 대상 정보제공 기능 강화</li> <li>• (지원대상) 스타트업, 투자자, 스타트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대·중소기업 등</li> <li>• (지원내용) 정보제공, 네트워킹, 투자매칭, 비즈니스 협업 등</li> </ul>
스타(트업)·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배경)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과 신기술 개발과 제품혁신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연결,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 기회를, 중소기업 대상 비즈니스 혁신 기회 제공</li> <li>• (지원대상) 스타트업, 중소기업</li> <li>• (지원내용) 스타트업 협력 매뉴얼, 정보제공, 네트워킹, 협업 프로젝트</li> </ul>
딥테크 스타트업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배경) 기존 사업계획 중심의 선발 방식에서 탈피, 공학·기술 분야 우수 전문인력 선발 후 팀 구성, 사업계획 수립, 제품 출시 등 기술창업의 전 과정 지원하여 성과 창출</li> <li>• (지원대상) 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li> <li>• (지원내용) 팀구성·사업 아이디어 개발, 벤처캐피탈 멘토링, 사무공간 등</li> </u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배경) 현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기업형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과의 협력 연계를 통해 현지 대기업과의 협력 기회 제공 및 스케일업 지원</li> <li>• (지원대상)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li> <li>• (지원내용) 현지 기업주도형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과 국내 우수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플랫폼 사이트 구축, 현지거점을 활용한 현지 시장 안착 지원</li> </ul>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배경)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한 초기 자금 조달과 제품의 시장성 테스트, 판로개척, 브랜드 홍보 지원</li> <li>• (지원내용) 크라우드펀딩 입점 설명회, 등록비, 온라인 마케팅 비용, 시제품 개선 비용 등</li> </ul>

## 02 창업 지원분야 신규 프로그램 제안

### 1 캐스케이딩 펀드 (과기정책연 김선우 단장)

#### ○ 제안 배경

-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보다 용이하게 유수의 대기업 및 연구소, 대학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캐스케이딩 펀드 도입 필요
  - 캐스케이딩 펀드는 R&D프로젝트의 수혜자(대·중견기업, 대학 등)가 스타트업 대상 다시 Sub-Grant를 수여하는 낙수효과\* 중심의 공적자금 배분방식
  -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대·중견기업이 주체가 되는 R&D 컨소시엄에 제3자 파트너로 참여 가능

#### ○ 프로그램 내용

-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민간 컨소시엄이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 설정 및 혁신 기술 보유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직접 선발하여 R&D프로젝트를 수행

#### 【 기존 R&D 지원방식과 캐스케이딩 펀드 방식의 차이 비교 】

구분	기존 R&D 지원방식	Cascading Fund 방식
공고방식	· 연간 1회 모집 공고	· 연간 3번 내외 공개제안(오픈 콜방식) 공고
지원금액	· 지원금액 사전 결정, 동일금액 지원	· 최대한도(50만유로) 내 필요금액 지원
지원내용	· R&D, 판로, 마케팅, 인건비 등 세부 항목별 지원내용 결정(패키지 지원사업 제외)	· 수요자의 니즈를 중심으로 바우처 지원, R&D 마케팅, 인건비 등 맞춤형 지원
참여주체	· 대학, 공공기관·단체 등	· 민간 대기업들도 컨소시엄 참여 가능
지원자격	· 업력, 규모, 분야, 속성(성별, 지역, 재도전 등)에 따라 지원자격이 구분	· 개인·중소기업·스타트업 누구나 참여 가능
소요기간	· 공고-선정-보조금 지급까지 3개월 소요	· 보조금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선발과정	· 서류·대면평가 등 상당한 준비 필요 · 외부 평가 위원이 지원업체 선발	· 15페이지 내외 서류 신청 가능 · 컨소시엄이 중소기업·스타트업 선발 (공개제안, 평가·선발, 보조금 지급 등)

#### ○ 기대효과

- 스타트업 대상 대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기회(실증, 테스트) 제공 및 행정 부담 경감
- 디지털 전환, 스마트 시티 등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R&D 자금의 스타트업 낙수효과', '민간 수요형 R&D 개발' 진행 가능

## 2 규제자유특구·지역산업 연계 글로벌 창업도시 구축 (과장정책연 김선우 단장) ▶▶

### ○ 제안 배경

-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여 해외 스타트업 유입(Inbound) 및 우리 스타트업의 대상국 진출(Outbound)을 촉진하고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조성
  - 전국 14개 시·도 바이오헬스 분야 등 29개 규제자유특구를 해외 신산업·신기술분야 스타트업과의 교류 거점으로 활용

### ○ 프로그램 내용

- (지역산업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한국 취·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K-스타트업(지역 산업의 한류 기반 스타트업) 현장실습 및 인턴십 지원 강화, 졸업 후 현지파견 등을 통해 K-스타트업의 해외 판로개척 교두보 마련
  - \*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은 15.4만 명으로 수도권 59%, 비수도권 41% 거주 ('20년)
- (해외 스타트업 협력) 규제자유특구에 해외의 국가전략분야 스타트업 유치 및 지역 대학에서 특구 신산업 분야 국내외 인재 양성과 외국인 유학생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 유도
  - \* (부산 블록체인 특구) 블록체인 융합보안대학원 설립('20.4월), 대학연구센터를 통한 블록체인 플랫폼 분야 기술개발 협력
- (글로벌 스타트업 유치) 해외 스타트업 국내 유치 프로그램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16~)'와 연계하여 규제자유특구 해당산업 관련 스타트업의 지역 유치
- (글로벌 기술창업자 육성) 지역의 고급기술 보유 혁신창업가(글로벌 기술창업가) 대상 글로벌 멘토링 및 투자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성공률 제고

### ○ 기대효과

-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여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 확대, 해외판로 개척 등 우수 글로벌 기업(지역의 고급기술 보유 혁신창업가)을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

### 3 지역의 창업활성화 방안 (경상대 박종복 교수) ▶▶

#### ○ 제안 배경

- 지자체, 정부의 다양한 창업 지원사업 및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창업 및 기술사업화 성과는 수도권 집중
  - 지역의 특성과 자원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수도권과 동일한 지원방법으로는 자금, 인력, 시장이 집중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쟁 곤란
  - 다양한 창업 지원사업, 지원기관 등이 부처,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성과 달성이 어렵고, 중복 등 비효율 발생
- 수도권 외 지역의 실질적인 기술 공급주체인 대학과 공공(연)의 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 성과 창출이 한계 직면
  - 대학 기술이전 4,864건 중 44.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 쏠림 현상 및 비수도권 지역 내 기술사업화 성과 저조

#### ○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지역대표 유니콘 씨앗기업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소재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을 중심으로 지역특화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지역대표 혁신벤처(유니콘 씨앗기업, 가칭)로 도약시키는 프로그램 추진</li> <li>• (1차)개념검증(지자체), (2차)R&amp;D(중앙정부), (3차)민간투자 연결 방식으로 가젤형 혁신벤처로 양성 및 스케일업화를 지원해 K-유니콘 프로젝트와 연계</li> </ul>
기술혁신형 지역밀착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생태계에 기여하는 비중이 일정 이상인 지역 밀착형 기업을 발굴하고, R&amp;D 이후 기술사업화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지역 공공구매 연계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li> </ul>
생애주기별 맞춤형 창업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패 용인하는 고위험·고수익형 청년창업 비중의 지속 확대와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경력·네트워크 등 노하우를 청년창업자에게 전수 또는 협력하여 창업하는 세대 융합형 창업지원</li> <li>•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지역 내 산학연 은퇴자를 중심으로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li> </ul>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p><b>지자체 주도 지역창업 협력체계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주도 지역 창업 및 기술사업화 관련 기관*, 대학 및 공공(연),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창업·기술사업화 전문위원회(가칭)’ 구축</li> <li>* 창업관련기관, 기술이전사업화 관련기관, 지역 액셀러레이터·투자자 및 기술평가기관 등이 참여</li> <li>• 기술이전사업화 기업의 스케일업, 투자유치, 글로벌 성장 등을 위한 체계적 실행 아젠다 및 기관별 역할 분담</li> </ul>
<p><b>지역기업발(發) 스피노프 창업 활성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창업에 비해 창업가의 역량이 우수하고, 창업초기 일자리 창출 등 기업성고가 높은 ‘기업발 스피노프 창업’이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 조성</li> <li>- 사내벤처/스피노프 창업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모기업에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게는 완화 조치 추진</li> <li>- 기업발 스피노프 창업기업에 특화된 정책자금 지원 확충, 모기업 대상 금융·세제 지원확대 등</li> </ul>
<p><b>규제자유특구 등 활용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여 해외 스타트업의 유입 및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교류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 확충</li> <li>- 국가별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스타트업과 도시별 자매결연을 통해 스타트업간 협력 및 대상국 진출 기회 마련</li> <li>•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 지역 인재 양성 및 활용</li> <li>*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례) 블록체인 융합보안 대학원 설립('20.4), 대학연구센터를 통한 블록체인 분야 기술개발 협력 등</li> </ul>
<p><b>공공혁신조달 연계한 지역기업의 스케일업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확대하여 지역산업 및 지역 보유기술과 연계한 공공혁신조달 지원체계 구축</li> <li>- 지역거점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 중 지역기업과 연계한 혁신제품 수요발굴 및 공동연구 추진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li> <li>• 지역거점대학, 연구소, 기업 간 상호보완적 컨소시엄 구성하여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술의 현장적용 활성화</li> <li>- 단기, 장기 등으로 구분하여 혁신제품의 신속한 인증 지원 및 기술 고도화 지원</li> </ul>
<p><b>지주사 CVC 등을 활용한 지역 기술금융 재원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기업 전용 펀드 확대 및 지자체·지역 혁신기관·투자사(VC) 연계를 통한 운용 효율화로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li> <li>• 지역 산업 기반 초격차 펀드, 지역 기반의 청년·여성기업·창업 초기 기업 전용 모태펀드 등을 조성</li> <li>* 5대 초격차 분야 :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SMR, 수소에너지, 바이오</li> </ul>



## 4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 ▶▶

### ○ 제안 배경

- 우리나라가 인구구조의 고령화,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상되는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필요
- 정부는 1980년대 이후 경제 활력 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정책을 강화함과 더불어, 각종 창업지원사업 추진
  - 중앙정부는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이후 창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계기로 벤처기업 등 혁신역량을 갖춘 창업 촉진에 정책 역량 집중
  - 지방정부에서는 1993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광역자치단체(시·도)별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창업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추진
- 그동안 정부가 창업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청년창업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음에 비해, 선진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시니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 시니어 창업의 사전적 의미는 ‘은퇴 이후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통계청은 15~29세를 청년으로 규정,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청년창업 정책은 40세 미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시니어 창업자를 청년 창업자에 대비한 개념으로 40세 이상 창업자로 규정

○ 정책제안 내용

- 시니어 창업 친화적 환경과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창업 정책의 지원대상에 청년과 함께 지식·기술 보유 시니어를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육성 필요
  - 또한, 시니어 기술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종 창업경진대회, 창업로드쇼 등에 시니어 기술창업 부문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니어 기술창업 분위기 확산 및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체계적인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제도 마련

구 분	주 요 내 용
시니어대상 기업가정신(창업) 교육강화	• 시니어 기술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등에 근무하는 40세 이상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 실시
시니어창업 정책자금	• 시니어 기술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련 정책자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엔젤, VC 등 민간의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 필요
창업 이후 사후관리 기능 강화	• 기업운영경험 부족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초기 단계 시니어 기술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멘토링·컨설팅 지원사업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 필요
창업지원 인프라 확충	• 시니어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 공간(사무실 등) 확충 및 메이커스페이스(일반랩, 특화랩, 전문랩) 설치 방안 등 적극 강구

## 참고 문헌

### 〈정책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3.6.),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 관계부처 합동(2021.5.28.),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2022.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중소벤처기업부(2021.4.26.),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2022.1.4.),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1.1.13.), “실리콘밸리식 투·융자 결합 금융 도입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1.8.4.), “세계 최고 혁신 창업국가를 위한 창업정책 청사진 발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 수립”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1.12.21.), “창업국가 건설을 공고히 한다. 창업 지원법 35년만에 전면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7.5.18.), “「고성장기업」 일반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역량 월등”

### 〈연구자료 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1), “영국의 스케일업 모니터링 체계와 한국에의 시사점(김선우 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방안(김선우 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전환시대 지역혁신생태계에서 선도기업의 역할과 기여(김승현 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2020 기업 · 성과 및 고성장 기업의 혁신 특성(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4차산업혁명의답테크스타트업(이정우),” Entrepreneurship 2017 Vol.5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2), “한국 창업생태계 진단과 지원방향(김선우 외)”
- 정보통신진흥원(2019), “국내·외 고성장기업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서희 외)”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주요국의 스케일업 지원정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기술기반 고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조길수 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 “미국의 창업 지원 정책 사례 분석과 시사점(이길우 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8), “고용있는 성장을 위한 고성장기업 육성방안(김한준)”
- KDB미래전략연구소(2019), “주요국의 스타트업(Startup) 지원방식과 시사점(서대훈)”
- KDB미래전략연구소(2020),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촉진방안(조윤정)”
- 창업진흥원(2021), “주요 선진국 창업·벤처통계 비교 분석”
- 서울연구원(2021), “창업 초기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서울시 창업지원정책 개선방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승실대 산학협력단(2019),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차별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승실대 산학협력단(2019),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사업추진 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1), “KOSME 글로벌 동향 브리프(Vol.10), 「각국의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1), “뉴뉴노멀 시대 한국판 뉴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능 강화방안 연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1), “증진공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증장기 차별화 및 지원기관 정체성 명확화 방안 연구”
- 한정화(2006), “벤처·창업정책의 발전과정 및 비전”
- 창업진흥원(2010), “창업진흥원 증장기 경영목표(2021~2025)”

##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병옥** 규제정책연구실장

연구자 **양지애** 규제정책연구실 부장

연구자 **장지원** 규제정책연구실 부장

외부자문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종복** 경상대학교 교수(창업대학원장)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

## 협업부서

일자리본부 **창업지원처**

## KOSME 중소벤처기업 정책연구 리포트

발행인 김학도

편집인 규제정책연구실

발행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52851)  
전화 : 055-751-9271, 팩스 : 055-751-9411  
홈페이지 : www.kosmes.or.kr

-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기관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